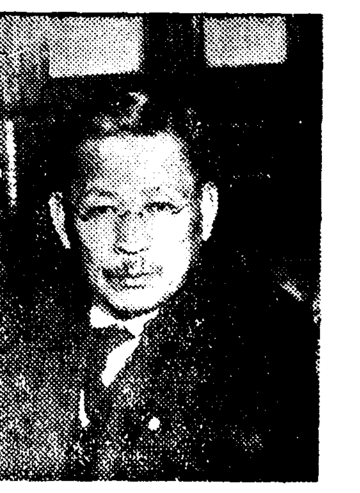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一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湯淺內府與津向發
一日中大命降下乎
平沼、近衛兩氏다음野村大將有力
强力內閣 組織을目標로奉答乎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은 政黨方面과의 軋轢으로 三十一日 마침내 總辭職을 決行하게되엿슴으로 湯淺內大臣은 林首相이 御前을 退下後인 午後五時二十分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 後繼內閣首班에 對한 御下問을 拜하고 『內府는 西園寺公에게 御下問하야달라』는旨를 奉答하고 御前을 退下하야 同六時西大久保私邸에 平沼樞府議長을 訪問하고 約一時間重要懇談을 遂한다음 同七時辭去하야 다시 電話로 近衛貴族院議長等과의 協議를 遂한後 同九時參內 天皇陛下께 再次拜謁하고 諸般情勢를 奏上한後 御前을 退下하엿다 그리고 湯淺內府는 一日午前五時半 東京發 西園寺公을 興津에 訪問하고 後繼內閣에對한 御下問을 傳達한다음 右에對한 奉答을 가지고 即日 歸京即時 參內하야 園公의 奉答內容을 伏奏할것인바 午後五時頃에는 大命降下를 보게될것이다 (寫眞은 湯淺內府)

【東京電話同盟】湯淺內府의 園公訪問으로 마침내 後繼內閣組織의 大命降下는 急速實現되리라고 觀測되는데 園公이 後任首相으로 何人을 奏薦할는지 갑작이 豫斷하기難하나 林內閣이 擧國一致의實을 擧하지 못하엿기때문에 退却한事實에 鑑하야 老公은 眞正으로 時局을 認識하고 國難打開에當하야 또擧國一致의 强力內閣을 組織할수잇는 人物을 奏薦하리라고 推察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자조 後繼內閣首班의 候補者로 推擧되는 平沼樞府議長及 近衛貴族院議長이 가장 有力視되고 近衛議長은 아직 健康이 조치못하다고 傳하는 情勢로보아 平沼樞府議長이 가장 有力하다고 傳한다 平沼氏의 受諾이 困難할 境遇에는 다시 海軍方面에서 適任者를 物色할것이라는 議論이 놉기때문에 이러한 境遇에는 學習院長 野村吉三郎大將의 呼聲이 놉다 其他永野、末次兩大將說도잇고 政界一部에는 水野鍊太郎氏 或은 廣田前首相을 待望하는 意向도잇다

時局收拾急速進展乎!
湯淺內府、午後三時二十五分歸京、即時參內
御下問에奉答할豫定

【東京電話同盟】湯淺內府는 林內閣總辭職에 伴하는 後繼內閣首班에關하야 御下問을 拜하고 內外時局이 極히重大한대 鑑하야 元老西園寺公과 特히協議한後 奉答할旨를 奏上하고 一日午前五時三十分 東京發列車로興津에赴하야 元老西園寺公과 會見하고 御下問의御趣旨를 傳한다음 三十一日에行한 平沼樞府議長과의會見內容、內府自身의意向、平沼議長의見解、各方面의一般的情勢를 詳細說明하야 協議를遂하고 會談一時間後에 坐漁莊을辭去하야 午後零時三十九分靜岡驛發午後三時二十五分東京驛着特急『富士』로 歸東하엿다 湯淺內府는 午後三時二十五分東京驛着 即時宮中에參內하야 天皇陛下께拜謁하고 西園寺老公과의 協議結果를伏奏하고 御下問에奉答한다음 御前을退下하기로되엿는데 今日저녁까지에는 組閣大命이降下되리라고 觀測됨으로 時局收拾方途는 急速進展되리라고 觀測된다

近衛公俄然有力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首班에關하여는 今日의時局은 眞正容易치안는바잇서서 內外情勢는極히 逼迫하고잇는現狀에鑑하야 眞正하게 擧國一致 時艱克服에當할人物의出馬를希望하고軍部 財界 政黨各方面에서는 此際貴族院議長近衛公의蹶起를要望하고잇서서 俄然近衛公이 가장有力視함에이르럿다

大橋、川越兩長官 辭表를提出

【東京電話同盟】大橋書記官長及川越法制局長官은 林內閣總辭職에伴하야 辭表를提出하엿다

警視總監도辭表提出

【東京電話同盟】橫山警視總監은 林內閣의 總辭職에伴하야 三十一日河原田內相手許에 辭表를提出하엿다

內相、近衛公과要談

【東京電話同盟】河原田內相은 一日午前九時二十分 近衛公을 永田町自邸에 訪問하고 內閣總辭職經緯를 報告하고 時局에 關하야 要談을 遂하엿다

近衛公健康診斷

激職에堪當할수잇슬가알고저함인듯

【東京電話同盟】貴族院議長近衛文麿公은 一日午前九時傳染病研究所長宮川米次博士를 訪問하엿다 이는公이激職에堪當할수잇는가업는가의健康診斷을받기爲함이아닌가한다

"內府"에"御下問"
園公訪問은協議奉答이目的
將來의新例될듯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首班에 對하야는 從來元老西園寺公에御下問하시압섯는데 園公도老境에 入하엿슴으로 今回政變에잇서서는 內大臣湯淺倉平氏에게 御下問하압시엿슴으로 湯淺內府는忠僕하야 元老西園寺公과 相談할 것을 勅許하야주시압기를伏奏한데 對하야 天皇陛下께압서는 西園寺와 協議한後 奉答하라는 御優渥하압신勅語를拜受하엿슴으로 暫時御前을退下하야 一日西園寺公을 訪問하기로 拜承하엿다 그리고 今回의 御下問形式은 將來의例가되리라고 拜察된다

立憲政治尊重하는
强力內閣을支持
政民兩黨의組閣에對한意向

【東京電話同盟】政民兩黨은 林內閣倒壞直後 三十一日夜各其首腦部會議를開催하고 時局對策에對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黨이取할 態度에對하야協議하엿는데 內閣倒壞의 第一目的은 達成되엿스나 問題는 오히려今後에잇는바 政民의 聯繫를强固히하야 組閣에際하여는 擧國一致內閣을要望하는데는 變함이업슴으로 이方針을 堅持하야 如何한人物에 大命이 降下되든가 立憲政治를尊重하는 擧國一致의 强力內閣에는 支持를不惜하는 態度로進行할 意向이다

朝鮮軍司令部 創立卅二週記念式

朝鮮軍司令部에서는 一日午前九時半부터十時까지 創立卅二週年記念式을 擧行하고 馬術、劍道、弓道、蹴球、小運動會를 開催하고 酒保實及 模擬店을열고 餘興等이잇슨뒤 午後四時半에 閉會하엿다

第二十師團의 春季聯合演習
一日부터六日에亘하야擧行

第二十師團에서는 一日부터 六日에 亘하야 春季諸兵聯合演習을 擧行하기로되엿다。이 訓練은 秋季演習보다 大規模로 할터이며 特別히 夜間戰에 主力을 드리기로되엿다 平壤、大邱部隊는 一日부터 三日間 大田 附近에서 各其 擧行하고 龍山部隊는 歩、騎、砲、工各部隊를 總動員하야 三日에 水原、安養에서 末明 遭遇戰을 시작으로 山下第四十旅團長統監의 北軍은 南雲七十八聯隊長指揮下에 南軍은 野村七十九聯隊長指揮下에 陣地攻防 追擊等의 野外演習을 山野에서 展開하기로되엿다。이 試驗은 師團最初의 일로 除隊兵最後의 訓練에 初年兵의 初登場을 보게되고 特科部隊를 配置한點等은 注目되는바이다

私를滅하야辭任
林首相、辭職理由陳述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三十一日午後六時부터 首相官邸에 內閣部內의高等官一同을 招待하고 晚餐會를開催하엿다 其席上에서 一場人事를述하엿는데 今回의 內閣總辭職理由에對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現下內外情勢가 實로容易치못한것은 諸君도充分諒解할줄로 생각한다 余는一大決心으로御奉公하야 時艱을克服하려하엿스나 刻下의情勢는諒察한바와 가티 政府政黨이對立되여國內相剋의 情勢를 暴露하는것은 國家를 爲하야 實로憂慮할만한 現狀이라고 생각한다 이 狀況에 一大轉換을 與하야 我憲政本義에 誘徹하기爲하야 自己는 其位置를버려서 私를 滅함이 必要한줄로 생각하고 三十一日各閣僚의 同意를 어더 辭表를 捧呈하게되엿든것이다

平沼近衛氏出馬難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組閣의 大命은 一日夕刻까지 降下되리라고觀測되는데 眞正한擧國一致協力內閣의實現은 國民一致의要望으로되여잇는實情에鑑하야 貴族院議長近衛文麿公 樞密院議長平沼騏一郎男兩氏가 目下有力視되다 그러나 近衛公은 依然健康이조치못함으로 時局重大한此際 同公의健康은 果然大政變裡의重責에堪當할수잇슬는지 念慮되고 또平沼男도 其側近一部에 此際出馬는諸般情勢로보아 困難하다하야 자못平沼說을 取消하는側도잇서서 有力視되는 兩氏가 모두 出馬困難한 事情인듯시 傳한다 그리고 近衛平沼兩氏가 모두 出馬不可能하게될境遇에는 如何한人物이 時局收拾에當할는지 全然混沌하야갈작이 豫斷키難한情勢이다

林內閣의瓦解는當然
佐藤外相의留任을希望
國民政府當局의意向

【南京三十一日發同盟】林內閣의總辭職에對하야 國民政府當局은 最近 자조傳하는 日本政局의不安이 마침내 爆發되엿든것으로 不得已한推移라고 보고잇는데 特히 後繼內閣의 首班如何에 異常한注意를加하고 다만如何한後繼內閣이 成立되드라도 革新政策을 中心으로한 根本國策에는 變更招來하지안흐리라고 豫想하고 如何든 日本國內의 政情이 一日이라도 速히 完全安定되여 北中問題에對하여도 明確한態度로써 中國의建設에對하야 援助를不惜하기를 要望한다 特히佐藤外相에依하야 日中關係가 良好하게된 空氣를 釀成한것을 指摘하야 佐藤外相의 外交方針에 讃辭를 呈하고極力同外相의 留任을 希望하는데 萬若不可能할境遇에는 同氏와 同型의 外相就任을 希望한다

001193

歐羅巴政局恰然히
大戰前夜에彷彿
西班牙內亂의國際戰爭化防止努力도水泡
獨脫退로不干涉協定一角崩壞

【倫敦卅一日發同盟】西班牙人民戰線軍이 二十九日 夕刻地中海 이비사島 沿海에서 獨逸袖珍戰鬪艦도이취란드號를 空爆한結果 乘組한 獨逸兵에게 數十名의死傷을내고 甚大한 損害를 蒙한 旨의報道를 接受하자 히틀러總統은 三十日急遽伯林市에서 伯林에 歸還하야 總統官邸에 國防相부롬베르그元帥、外相노이라트男、空相괴링그將軍을 招致하야 協議한結果 重大報復을하기로決定하고 獨逸聯合艦隊司令長官 러터-提督은 緊急會議後直時西班牙遣外艦隊에對하야 重大訓令을 내리고 獨逸巡洋艦一隻、驅逐艦二隻(別電에依하면 獨逸軍艦은 五隻이라고도한다)은 三十一日早朝西班牙東南岸主要據點알메리아港에 對하야 一齊히 砲門을열고 猛烈한 十字砲火를 퍼부서 發射한 砲彈은 無慮二百、이때문에 알메리아港全市는 火焰漲天하야 天을 冲하고 市街上에는 屍體累累한 慘狀을 呈하엿다 알메리아港에 設置된西班牙砲臺도 直時 砲門을열어應戰하야 早朝의 地中海에 猛烈한砲擊戰을 展開하게至하엿다 西班牙砲臺에서 發射한砲彈은 無慮六十餘、其中數彈은 獨逸驅逐艦一隻에 命中되엿다한다 獨逸이 마침내 報復手段을 取하다는公報를 接受하자 발렌샤政廳도 聯盟代表델바요前外相으로 하여금 緊急理事會招請을 要求케하엿다 一方 獨逸政府는 不干涉委員會를 脫退하고말엇다 이러한 獨逸行動은 一種의 示威行動이라고도하나 何如튼 昨一九三六年七月西班牙內亂勃發以來國際戰爭化를 阻止하여온 不干涉大勢도 獨逸政府의 脫退로歐洲國際政局은 거이世界大戰의 前夜를彷彿케하는 重大局面에逢着하게되엿다

獨聯合艦隊司令長官
砲擊을嚴命
西政府의艦艇發見되는대로

【伯林卅一日發同盟】獨逸聯合艦隊司令長官 러터-提督은 三十一日 麾下全艦隊에對하야 西班牙軍艦及航空機를發見할境遇에는 一齊容赦업시砲擊하라고 嚴命하엿다

『세아』號도活躍

【倫敦三十一日發同盟】獨逸軍艦五隻은三十一日새벽 알메리아港을 砲擊하엿는데 袖珍戰艦아드미랄·세아號(一萬噸)는 戰鬪에活躍하엿다고 傳한다

알메리아砲擊事件
獨逸政府發表

【伯林三十一日發同盟】獨逸政府는 알메리아港砲擊에 關連하야 三十一日午後一時三十分左와如히 發表하엿다

獨逸政府는 不干涉委員會의獨逸代表에對하야 事件의 顚末을 說明하고 또左의 政府의 決意를 通達하라고 訓令하엿다

獨逸政府는 도이취란드號爆擊과如한 不祥事件이 反覆될時에는 確實한 保障이업는限 不干涉制度及 委員會의 討議에 參加치안흘터이다 赤色政權에 對하야 獨逸政府는 其敎書에 基하야 報復手段을講究할것은 勿論이오 그리고右期間赤色航空機及 軍隊가獨逸軍艦에 接近할境遇에는 武力으로써 對抗하라고指令하엿다

死傷七十餘名

【발렌샤卅一日發同盟】獨逸艦隊의 알메리아港砲擊으로 死者十九名 負傷五十五名을내인模樣이다

獨艦砲擊에對해
발렌샤政廳發表

【발렌샤卅一日發同盟】발렌샤政廳國防相은 三十一日 午後一時獨逸艦隊의 알메리아港 砲擊에對하야 左와如한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獨逸戰鬪艦一隻、驅逐艦四隻은三十一日 午前五時四十分頃갈타헤나方面及 알메리아港 近海에 出現하야 視距離로써測定한바에 依하면 海岸에서十二杯에 到達하엿슬때 無警告로 알메리아港에 砲擊을 開始하엿다 但艦隊는 特定地點을 目標로 하지안코 알메리아全市에向하야 二百發의 砲彈을 發射하엿다 알메리아 護岸砲臺도 即時應戰하야 六十餘發의砲彈을 獨逸艦隊에 發射하엿는데 其中數發은 아마驅逐艦一隻에 命中되엿다 獨逸艦隊는 午前六時五十分에 이르러 砲擊을 中止하고 煙幕을베프러艦隊를 隱蔽하면서 東方으로向하야 떠낫다 獨逸軍艦이 軍艦旗를揭揚하고 알메리아港을 全部封鎖한것이 明確히보인다 알메리아市街는 獨逸艦隊의砲擊에依하야 破壞는勿論 死傷도不少하야 正確한 數字는判明되지안는다 哨戒飛行機의報告에依하면 獨逸艦隊는 멜릴라方面으로急航하엿다고한다

獨報復手段을
伊太利支持表明

【羅馬三十一日發同盟】獨逸艦隊가 알메리아港을 砲擊하엿다는報道에 伊太利政府當局은 別로놀라지안코 左의見解를 表明하엿다

一、西班牙人民戰線은 再三獨伊兩國政府軍艦을 砲擊하엿는데 右措置는 意識的侵略行動이다

一、獨逸艦隊의 行動은 當然한 報復手段이다 伊太利政府는同時에右手段을 支持한다

國際監視에서 伊太利도脫退

【羅馬三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三十一日午後五時에이르러 國際監視案으로부터 自國軍艦을 撤收할旨를聲明하엿다

獨伊의脫退決定을 協定參加國에通達

【倫敦卅一日發同盟】獨伊兩國政府는 西班牙의 人民戰線의不

辭令

遞信技手 江面 善次
任朝鮮總督府遞信技師(七等)
全羅北道産業技手 朴 長 爀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全羅北道産業技師
全羅南道産業技師 立野角之助
(全羅南道技手) 日高 好衛
(同) 江上 靜馬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全羅南道産業技師
朝鮮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長兼敎諭 古賀 德義
陞敍高等官三等
鐵道局書記 石塚 久司
任朝鮮總督府鐵道局副參事(七等)
任朝鮮道立醫院醫官(七等) 栗原 剛
命咸鏡南道在勤
(平壤)朝鮮公立中學校敎諭 東西 瑞穗
朝鮮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長兼
朝鮮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敎諭
(四等)
補海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敎諭
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長浦 千代志
任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
補公州公立農業學校敎諭(七等)
(北海道廳技手) 小野 殖
任朝鮮土木技師(七等待遇)
補忠淸北道土木技師
全羅南道産業技手 松瀬 雄一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全羅南道産業技師(各通)
遞信技師 江面 善次
(咸南)朝鮮道立醫院醫官 林 成 燦
依願免本官(各通)
(海州)朝鮮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長兼敎諭 古賀 德義
(春川農業)朝鮮公立農業學校長兼敎諭 野中 鼎
依願免本官並兼官(各通)
朝鮮産業技師 朴 長 爀
同 立野角之助
同 日高 好衛
同 江上 靜馬
依願免本職(各通)

本社參觀

▲平壤崇仁商業學校生徒八十四名 金孝祿氏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孔鎭恒氏(漢城圖書株式會社專務取締役) 人事次來社
▲渡邊守光氏(商業公論社社長)新任人事次來社
▲李相基氏(京城覆審法院判事)六月一日午前八時 玉仁町順化院構內 私邸에서 遭內艱

八面鋒

◇林內閣、四個月의短命으로 드듸어瓦解。
◇短命은 生時부터 타고난八字 未完成대로瓦解는 ㅎ、ㅎ섭섭하일。
◇後繼內閣의候補는 例에依하야 近衛、平沼、大角、南、本庄、河合、廣田、그리고 林權助까지。
◇但、第一廣田、第二廣田、第二林이 누가될지는疑問
◇辭職理由에日、國內의相剋이잇음은不可하니 速히 이런空氣를解消하기爲함이라고。
◇所謂 林首相의 滅·私·奉·公的虔事라고하여둘가。

急告
二日より封切豫定の東寶映畫·東京發聲特作『オヤケアカハチ』は都合に依り朝鮮總督府檢閱保留の爲、乍勝手
東寶映畫提供·東京發聲特作
豐田四郎 監督·マドロス·ロマンス
藤井貢·西條エリ子 主演
「港は浮氣風」と
差換え上映致します
若草劇

6月2日より
かりそめの幸福

怨恨でも、痴情でもない。一人の青年が、當代一の人氣映畫スターを狙擊した。理由は默して語らない。だが彼の胸に秘められた怒りと熱情はあらゆる近代青年の怒りであり、熱情ではなからうか!
東和商事提供
オヤケアカハチ
東京發聲作品 東寶映畫提供
藤井貢 市川春代 主演
三井秀男·山口勇
石井漠舞踊研究所
高田せい子

若草劇
大人 五〇錢 小學生 三〇錢

鴨綠江上數百里上流深山靈草精製
內外兼用하는仙藥
精力更生 效藥
官許 九仙湯エキス(엑기쓰)
◎補精强壯의天下第一等藥
◎胃腸良藥(慢性胃腸病、便秘、食慾不振에特效)
◎婦人에게도良藥(産前産後、血道에도特效)
◎厥冷、痔疾、神經衰弱에神效
◎外用에도神妙(다치대、마진대、유종、其他모든皮膚에)
效能顯著、大好評、需要激增、이야말로天下에들도업는靈藥입니다
價 卅日分 一圓八十錢、六十日分 三圓二十錢 百日分 四圓五十錢
本舖 京城府黃金町六丁目 四元深山藥草研究所 京城運動場正門前 振替京城二三五六一番

特約店募集(先取特權)

廣告
日月時報第四號에揭載한바와如히 用次二層木洋製百坪 京城府南大門敎會와 學院을兼用하야 敎會堂을此新築地로移轉하오니 一般敎人은洞悉하시압
朝鮮儒敎會宗理司 告白

恩給
五年分以上低利立替 舊債借替歡迎 內書進呈
京城府中學町一四 金星商會 電話(光)二七五八番

朝報園內

募集
全鮮各地方에 責任者募集 至急照會하면詳細回答 添付하야地方에有力者를 昭格町九三 朝鮮花譜出版部

文化刺繡敎授
京城府南町一二五 京城手藝硏究所
申込所 鐘路 英美堂 商店

買受
十年五月分을 朝鮮日報昭和八年四月二十六日附至同 通知하시압 京城府明倫町三丁目六七ノ七李遠燮

眼鏡의 仕入은當店에
萬年筆 眼鏡 輪入御卸 良品販賣 商報進呈
K 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高級最新型各種蓄音機! 驚異的『謝禮品付』大亂賣!
オニク式再生音導裝置完成記念 ポータブル型
NO 603 A ¥36.00 B ¥32.00 C ¥23.80
NO 46 A ¥38.00 B ¥28.00 C ¥19.80
NO 123 A ¥37.00 B ¥33.00 C ¥29.00 ポータブル型
NO 582 A ¥37.00 B ¥33.00 C ¥23.00
NO 63 A ¥44.00 B ¥29.00 C ¥19.00 スタンド型
御取引條件
京城 銀座 樂器店 銀座通信販賣部

"라트비아"의珍客機 一日京城에着陸

北歐라트비아에서 서울까지일곱달걸린 뱃심조흔長期飛行

空中漫步新記錄

동반구의 대공을 운유삼아 귀치안흔 기록도 안중에업고 까다라운 일정도 헤아림업시 날세기면 쉬여 이야말로 창공의「집씨」라고 부를만한 뱃심조흔「파이롯트」가 경성의 하늘을 돌연방문하엿다

작년시월에 세계지리에 관심업는 사람이면 기억도 잘 못할 북구「北歐」발틱삼국의 하나인「라트비아」서울「리가」를 출발한「하바르쪼구르트」(三七)대위는 조종의 저익단엽(低翼單葉)스포-츠용비행기「YLIAB」호기는 작년시월고국을 떠나후 남방코-스를취하야 일백사십마력이라는 경비행기에 그나마단독조종으로 장근칠개월동안 유유히 대륙을횡단하야 면칠전에 향항(香港)을거처 북평(北平)으로 일일아침은 일곱시오분봉천(奉天)을 출발하야 오전열시십이분 여의도(汝矣島)경성비행장에 도착하엿다 이진기한 국제비행가를맛고저 이날비행장에는 산전(山田)체신국장이하관계당국자 다수의출영이 잇섯스며 쪼구르트대위는 착륙즉시로 애기(愛機)에 손질하고 급유(給油)를마친후 오전열두시경성비행장을출발하야 대구(大邱)를거처 대판(大阪)에들럿다가 최후의목적인 동경까지갈 예정이라고한다

『東洋風物구경하러왓소』 쪼大尉談

비행기로부터 몸가볍게뛰여나린「쪼」대위는 달려드는 기자에게대하야 다음과가티말하엿다 나의목적은 아무것도업고 군인의몸으로 잇는동에 일년동안 휴가를어더 평소에 동경하고잇든 동양을구경할 기회를 엇게되여 본국을떠나 비행기로 출발하엿다 이번 비행을 하기시작하야 올봄까지 일년동안 여행하엿다 내가타고 온비행기는 내손으로 만든 라트비아국산기(國産機)로 가격은 일천이백파운드가량이다 당신나라사람은 비행기우에서보아도 일본에 흔히 조흔 일기가조하서 편안히비행하엿다 (사진은 여의도비행장에 나타난 "쪼"대위)

東京新京間 超特急彈丸機

一日午前汝矣島寄港

劃期的旅客空輸의第一日

일본항공회사에서는 일일부터 동경 신경(新京)사이에 초특급정기항공을 개시하엿는데 그첫비행이 시작되는 일본항공회사의 일본내지 조선 만주간 초특급정기비행기「에이티」(A.T)기는 일일아침일곱시이십분 신경(新京)을 떠나서 예정시간보다 조금일즉이 열시삼십구분에 청목(青木)비행사가 조종하야 손님들을 실고 무사히 경성비행장에 도착되엿다 비행장에는 산전(山田)체신국장을 비롯하야 ... 이리하야 동경(東京)을 향하야 오전열시오분에 ... 그동경에 오후세시 도착 ... 초특급비행기는 오후한시반에 경성비행장에 도착하야 신경으로가는데 경성 이 초특급비행기는 일시간에 연락하게되는 것이다 (사진은 여의도에 도착한 초특급기)

曺國安一派의長銃團 一夜三處輪襲、掠奪

咸南對岸의物情騷然

繁茂期 共産軍 出没★

【咸興】 기를앞두고 적극적활동을하고잇는 함남도대안에서 또다시 공산군 조국안(曹國安)의 일대가하로동안에 세군데를 륜습(輪襲)하야 전후다섯명의 주민을 랍치하야 주민들을 공포에싸이게하고잇다

지난이십구일 오전한시쯤 팔도구서강성(八道溝西崗城)에 수명의 장총단(長銃團)이 나타나서 주민세명을 동두시에 역시 십여명에 장총 권총을가지고 그곳 장가점(張家店)을습격하야 식량과주민한사람을 동세시에역그에싸여잇다 시곳대봉성(大蜂城)에 이십여명이나타나서 식량과주민한사람을 붓잡어갓는데 이무장단은 팔도구대정자(八道溝大頂子)방면에진을치고잇는 공산군 조국안(曹國安)의일파로 판명되엿스며 하로동안세차레식의 습격에 동지일대주민은 전전긍긍하야 두려움에싸여잇다 그중에 기병십오련대에는 삼립궁전하(三笠宮殿下)동십륙련대에는 현양궁전하(賀陽宮殿下)가 어근무하시고 계심으로 당국에서는 부근일대를 소독하야 만전을기하고잇다

女從業員도 制服着用

鐵道局에서實施

철도국에서는 일일부터 여자종업원에게도 일제히 일정한 제복(制服)을 입도록 규측을 정하고 곳실시하엿다 철도국안에서 근무하는 여자는 자비(自費)로서 맨드러입고 전화교환수 정거장차표파는 여자등 현업원(現業員)은 철도국에서 빌려주기로되엿다 겨울과 춘추에는 상하모두 초록색(草綠色)이고 여름에는「부라우스」는 백색 또는 담황색(淡黃色)이며 모자는 겨울과 춘추에는 초록색이고 여름에는 파나마를 쓰게하기로되엿다 그래서 철도국여자종업원에게도 의복사치의 폐단을 업시하게되엿다한다

『룸펜』群總檢索

一日새벽本町署刑事隊管內에出動 "街頭夢"에"檢擧網"!

부내 본정서 사법계에서는 일일오전한시를 기하야 형사대를 총동원식혀 부내 각국장부근도는 은행회사구내 청계천(清溪川)다리밋등에 몰려잇는 걸인군에게 일제검삭의 손을펴엿다 이번검삭으로 가두에 매주품조차 못얻어보고 동서로 룸펜드리간것이 상당한 대개가 전과를 거듭하며 괴로운사파의 언덕을 허덕이며 올라가든거리의「룸펜」들이다 검삭의동기는 최근 갑작히늘어진 빈집점문의도적과소매치기를 절멸시키랴는의도에서 출발한것으로 이들을 취조함에따라 의외의수확이나타날형세가 보인다고한다

學校專門賊 容疑者逮捕

요사히 학교에서 빈번히이러나는 도난사건의 범인체포에전력을다하고잇는 동대문서원의손에 유력한혐의자하나이 붓잡혓다 삼십일일오후두시반경 부내창신공립보통학교(昌信)뒤산솔밧가운데서 끈히낫잠을자고잇는자를 동대문서원이 발견체포하엿는데 이자는 수원군장안면석포리(水原郡長安面石浦里)태생 정태영(鄭泰泳)(二○)이란자로 취조계원에게 학교를 하지안흐나 요사히류행의학교를노리는 도적놈인혐의가만허 엄중추궁중이다

京仁線電化後 運轉時間短縮

현재오십분을삼십분으로 鐵道局電氣課事務開始

철도국에서는 일일부터 드듸여전기과(電氣課)를 신설하고사무를 개시하엿다 신설된 전기과에서는 철도공사관게의 전력(電力)과 통신전기등 사무를마타보는것은 물론이고 철도전화(鐵道電化)문제에 대하야 특별히계획을 세우게 될터인데 장차 경인선(京仁線)의 복선공사(複線工事)가 진행됨을 따라서 제일착으로 경인선의「전화」공사만 수할터이라한다 이「전화」공사만완성되는날이면 경성인천사이의 래왕시간은 현재의 오십분으로부터 삼십분가량으로 훨신단축하게될터이라한다

어린이夜市求景은 어룬이데리고함입

여름날밤 어린아이혼자서 야시구경은 위험천만! 삼십일일밤아홉시이십분경 부내종로이정목신설번지압길에서 혼자야시구경하든 손임권(孫任權)(九)이란 어린아이가 전차길을 건너가다가 경제구전구삼일호 경화(京華)자동차에치여 안면기타에중상을입엇스며 노진탕을 이르켜부근병원에서 응급치료중이나혼수상태로 어데사는 아이인지를 알수업서 종로서의 두통거리가되여잇다

四私鐵에서도 一齊히臨時手當

六月一日부터實施

조선안에잇는 조철(朝鐵)경남(京南)신흥(新興)경동(京東)등각사철도회사에서도 륙월일일부터 하급사원에게 일제히 림시수당을 주기로되엿다 수당을 바들사람의 범위는 각사가 가튼를로서 하급사원에게는 두렵게하야 일급팔십전이하의 사원에한하야 본봉칠분으로부터 일할가량의 수당이라고한다

觀光協會定總

경성관광협회(觀光協會)에서는 오는 삼일오후한시반에 조선호텔에서금년도정기총회를 개최할려이라한다

野機重兵七聯隊에 赤痢類似患者續出

【船橋電話同盟】 야기중병(野機重兵)제칠련대의 적리류사환자는 일일현재까지에 이십사명에 달하얏는데아직도속출하는모양이다

朝鮮體育會 今年度事業案

조선체육회에서는 지난三十一日에 定期總會를열고 今年度事業을 다음과가티決定하엿다

昭和十二年八月初旬 第八回 水泳講習會 (主催)
九月中旬 第五回 全朝鮮풀마라손(主催)
自九月初旬至十一月初旬 第十八回 全朝鮮綜合競技 (主催) 種目=蹴球、籠球、排球、庭球、野球、陸上、水上、卓球、力道、씨름、럭비-、柔道、劍道
昭和十三年
一月中旬 第十八回 全朝鮮綜合氷上競技 (主催)
一月中旬 第五回 全朝鮮中等氷上競技 後援(白狗)
一月中旬 第三回 全朝鮮都市對抗氷上 後援(白狗)
一月下旬 第四回 全朝鮮女子氷上競技 後援(女煕)
三月中旬 第八回京永斷郊競技 後援(高麗)
四月中旬 第六回 全朝鮮풀마라손 (主催)
四月下旬 第三回 全朝鮮都市對抗籠球 後援(朝中)

滿洲國卓球來征

滿洲國卓球協會에서는 今番全滿洲代表選手를 選拔한後 日本遠征途中 來六日午後二時半 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하야 同日午後六時부터 (會場未定)全京城軍과 對抗戰을 擧行하기로되엿는바 兩軍멤버-는 다음과갓다

◇滿洲國 ▲監督=渡邊(滿洲國) ▲選手=主將土村(電氣) 富田(日) 奧田(同) 太田(滿鐵) 淸水(安東) 溝野(滿洲國) 諭與綾(高師)

◇京城代表 ▲監督=庄司(城東中學) ▲마네저-=金成玉(遞信) ▲主將=朴在鐵(總府) ▲選手=金成鎬(總府) 金相赫(專賣局) 權島(城大) 朴鎭植(大邱) 周鍾洪(普專) 高摩錄(普專) 崔根恒(培材) 金珍八(培材) 吳萬根(道商)

京城運動場풀 今一日부터開場

京城運動場府營풀開場式은 豫定과가티 今一日 午後二時부터

朝拳팀木浦에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木浦遠征케되여 金泰榮 金明錫 金亨中 宋泰鐵等四選手는 코-치 金容起氏引率下에 一日午後十一時十分發 南行車로 出征하엿는데 一行은 同日午後에 遠征人事次로 本社를來訪하엿다

慶應3 立敎0

【東京電話同盟】 東京大學野球리그 慶應對立敎第二回戰은 三十一日午後二時五十七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慶應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三對○으로 慶應勝 閉戰四時五十分

立敎 000000000……0
慶應 010000110……3

말파러먹은 競馬場騎手

滿洲方面에高飛遠走

말을먹고도보족하야 말임자까지 먹어대는 기수(騎手)——부내안암정(安岩町)백이십팔번지경마(競馬)소유자 리천(利川)의집에잇는 기수 중송천부(重松天夫)(三五)라는자는 이십사일에 꼭 대구경마(大邱競馬)에 출장하엿다가 주인이맥긴돈 오원과 주인의말을판돈 어백오십원 마구기타를팔어 백여원합사백여원을 횡령하야가지고 어느새 서울에 도라오는날에그날로망칠하야 버렷다 동대문서에서는 그가만주방면으로 뛰비한것으로 단정하고 방금그의행방을 엄탐중이다

明年度 總督府豫算準備案完成

四億五千萬圓目標로國庫豁可及的節約

增税斷行歳入增加

既定計畫은中止、猶豫

총독부 명년도예산편성은 오월초순경부터 림재무국장(林財務局長)이 그준비에착수하야온데 이것이 지난삼십일에 준비안이완성되엿슴으로 일일아침에 남총독에게 그준비안의내용과편성의방침을 보고하얏는데 남총독은 여것을재검토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명년도예산편성방침은 종래의 그것보다 크게달라질터이며 금액도약사억오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약이천여만원이증가될 모양이다 그방침의 내용인즉

一、기정계획은 최근 물까등귀로인하야 중지혹은 유예할일
一、종래에는 표준물까에 의하야 막연한 금액예산만 요구하엿스나 어것은 물까의 변동이심한최근실정에 맛지안는것 임으로 용도의물까를 조사하야 물까와예산이 한지로도록할것
一、물가등귀의이때에 예산의팽창을되도록 기피하는견지에서 기정계획을 축소하며 또는년도를 연기할일
一、각국에서는 국고절약의견지에서 되도록 경비를절약하도록 할일
一、일본내지의 증세(增税)에 빗치어 조선에도 명년도에증세를 단행하야 세입(歳入)을 늘게할일
一、조선사회정세에외하야 명년도예산은 금년도보다 부족이증가하는것을 전제로하야 예산계획된다

등이다 그러면이와가튼 방침은종래에보지못하든것으로 명년도조선재게에 중대영향을주는크나큰 문제로일반의 주목을끌고잇게되엿다

三氏出捐으로 新明學校에曙光

普校昇格實現도在邇

시내 루상정에잇는 신명학교(新明學校)는 거금삼십여년전에 창립되어 이래 무산아동의교육기관으로 만흔공헌을하야오든중 최근에는 재적생이 륙백여명에달하야 방금학교당국에서는 보통학교승격운동을 맹렬히하고잇는데 이소문을듯고 시내항금정이정목 조병갑(趙秉甲)씨는 매년천원씩 무교정리상옥(李相玉)씨는 종전오백원씩보조하야오든것을 다시오백원을추가하야 천원씩、루하정유시천(劉時天)씨는 매년오백원씩을 동교의경상비보조로 승인하기를 쾌락하야 보통학교승격운동을 조장하기로되엿다한다 그래서 학교당국자는 물론 부근인사들도 전기삼씨의 태거를 칭찬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天氣豫報

概況 弱한低氣壓은 天津附近으로부터『海灣威』갈히 잇고 또琉球諸島로부터 八丈島에 걸처서 셋으로 논아진 低氣壓이 계속하야 東北東으로 進行하고 잇다 高氣壓은 北滿洲와黃海及 千島方面으로 퍼지고잇스며 그勢力은弱하다 滿洲及國境地方은 흐리고 朝鮮及裏日本은 대개날새가조호나 琉球諸島는비가오고 表日本及東北地方以北은흐리며 곳에따라서는 비가오는곳도잇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날세가조흔편이나 밤에이르러서는小雨가잇슬模樣이며明日은흐려다개엿다하며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十四度八
同 最低 十度七
今朝最低 十一度四
今日正午 二十一度五

慶北에雹災!

農夫一名落雷에即死

【大邱】 이십구일 오후네시쯤 경북도내 영덕군(盈德郡)지품면(知品面)옥류(玉柳) 도계(道溪) 률곡(栗谷)동지와 의성군(義城郡)각곳에 우박(雨雹)이 와서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만타는데 방금 피해정도는 조사중이라한다 그리고 영덕군지품면송천동 윤재옥(尹在玉)(三○)은 모판(苗板)에 나갓다가 도라오는도중에 우박을만나 잠시피하고저 큰나무 미테드러갓다가 락뢰되어 즉사하엿다

龜城에도 白白教徒

【龜城】 사교백백교적 밝에대하야 귀성경찰서 고등계의 엄밀한조사로 귀성에도 이악마교도가잇섯다는것이 판명되엿다 때는거금녀지금부터 이십구년전 죽면사실이면에서 사년까지 귀성군 관서면(館西面)노동면(蘆洞面)삽개면에 교도가잇서 이십사명의 즉 백여명의 군민을 압록의 세계로 인도하야가 멀니강원도로 다이사해버리고 지금은 전부소식불명이며 겨우한명만 판서면에 남어잇서 비밀히도망해온것이라는바 교도중에는 소위교주의 시녀가된 미인도삼명이나(십칠세 십팔세일인)잇섯스며 그들의바칠된 재산도 팔천구백여원이란거대한 금액이엿섯다는것이 판명되엿는바 귀성서에서는 아직도 현산교모가 잇지안는가 하고엄중한 조사를계속하고잇다한다

自動車自轉車衝突

삼십일일 오전열한시쯤 부내도정(大和町)삼십팔번지 아페서 부내·원정(元町)이정목에 잇는 림야방점원 정연록(鄭淵禄)(一七)이가 자전거를 타고 원정방면으로 가는데 본정(本町)태시 경(京)구천이백이십구호를 운전하고 오든 김용덕(金容德)(二三)의 자동차와 충돌하게되어 정(鄭)의 다리를 상하게되여 원정 송야(松野)병원에 가서 치료를 바덧다는데 전치까지는 일주일걸린다한다

男子溺死體

지난삼십일오후세시쯤 부내동작정(銅雀町)한강수상관근처에서 석포(石浦)순사가 한강인도교로부터 삼천키로 상류지점에 나이삼십이세가량되여보이는 남자의익사체가 떠잇는것을보고검시를하엿스나 소지품도 업스므로그외신원을 전연알수업다한다

强盜殺人犯 金加鳳死刑

覆審法院判決

작년삼월에 자기고향인 경기도장단군 군내면정자리(長湍郡郡內面亭子里)우차부 윤락희(尹樂熙)를 이사짐실어다 달라고 꾀어내여 강원도철원읍(鐵原邑)계로가다가 련천군미산면아미리(漣川郡嵋山面峨嵋里)속칭 하우현고개에 이르럿을때에 별안간 몽둥이로 뒤로부터 그의 머리를 때리여 직사케한후 소를끌고가다가 파련망은죄로 강도살인、사체유기죄에 걸리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밧고 불복공소한 강원도철원읍외촌리(外村里) 김가봉(金加鳳)(三七)에대한 언도공판은 일일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주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은 역시원심과가티 사형을 언도하엿다

中風과高血壓

原因부터곳치는 新發明 血液의大掃除療法

頭重頭痛도난다

年齡과標準血壓
四○歲……一三○미리前後
四五歲……一三三미리同
五○歲……一三五미리同
五五歲……一三八미리同
六○歲……一四○미리同
六五歲……一四三미리同
一五○미리以上은高血壓
一七○미리以上은危險

感氣에도안걸리고 熱도업건만은 머리가 무겁고 眩暈, 耳鳴이 나는것은 血液이 汚濁擁滯이니 이것은 腦溢血, 中風에걸릴前兆이다. 血管을나리게하는데는 濁, 燥, 血液의蓄積, 痛風, 神經痛으로 濁해진血液을淨化식혀서 血液이아모支障업시 循環이잘되게하면 그만이다. 血液淨化力이强한植物藥「イマヅ」는 今津博士가 完成한「リキシン」을 主成分으로한 그效果를倍加하는데 本劑는 血管을넓히여서 一時的으로血壓을나리게하는것이아니라 血液中에잇는毒素를 大掃除하야 血液을 하여 高血壓에 不隨症 …… 中風으로 半身不隨로 ……
販賣處 大阪市西淀川區大仁今津化學研究所

파리는 귀치안을뿐아니라 치부스、호열자、疫痢、赤痢、結核等의무서운傳染病을媒介식히는惡魔이다. 한마리의파리가몸에數千萬의黴菌을부치고 우리들의食物과입手足그저아모데나 숨어들더곳不拘하고뿌리고다닌다
惡疫을豫防하고저파리를全滅식히자
室內에조곰식뿌리고十分間쯤門을닷어두면파리는全部濁까스에걸리어전부가리全滅을하고만다.
食事하기前十分쯤해서蠅取粉을조곰뿌리여두면파리는한마리도갓가히오지못하니安心하고食事를할수잇스며大端히衛生的이다.
파리만이아니라빈대、진대이、벼룩、개미、油虫이나犬猫牛馬家畜의이、벼룩、羽虫等도イマヅ로問題업시全滅하고만다
(全國藥店에잇다)

液體殺虫劑와는딴판
▼イマヅ는人畜에는害가업지만害虫에는猛毒까스와가튼作用이잇슴으로 効力이强하고 오래쓸수잇는點으로液體와는全혀달으다
▼液體殺虫劑는불이나기쉽고이부자리나 壁紙가트것도더럽힐念慮가잇지만イマヅ는어느곳에서쓰든지絕對安全하다
▼イマヅ容器는그대로撒粉器로되엿스니 까特別히撒布器를살必要가업스니便利하고經濟的이다
大阪市大仁本町三 株式會社 今津學研究所

若劇

六月一日부터 晝夜三回 大人五○錢 學生小人三○錢
1 港は浮氣風 11・30 3・05 6・50
2 東日大毎ニュース 12・55 4・30 8・20
3 かりそめの幸福 1・05 4・40 8・30
(1)東京發聲作品 藤井貴・西條エリ子主演
(3)佛・パテ・ナタン作シャルル・ボワイエ・ギャビイ・モルレイ主演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六月二日부터 三天名畫大公開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三時三十分、三回七時三十分 大人料金階下七十五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傑作全發聲日本版
共演 캐리-쿠퍼-氏 프레드릭크·마-취氏
戰爭大活劇 テキサス決死隊
松竹キネマ社傑作 現代名劇 ある曉の出來事
主演 月田一郎氏 歌川絹枝孃
マキノ社超特作 時代劇 원作 マキノ正博氏
名演活劇 秘術猛獸團探險

光武劇場

往十里町
五月二十八日낫부터 劇團藝術座特別公演 ▲上演脚本▲ 林仙圭大傑作篇! 悲劇 내가사랑하는사람들 二幕五場
深刻한描寫로全劇壇의人氣를喝采에 속히東劇과府民館에서上演再上演에絕讚好評이든名劇「사랑에속고 돈에울고」를내노흔作者林仙圭氏가다시心血을다하야執筆한大傑作으로 거기에朝鮮製靈界의元老인 …… 雨田、金雲善兩氏의協力으로되엿 鮮初有의科學的新裝置—勿驚! 裝置만도一千圓이란巨額을突破!여 기에演出界의巨星인朴珍氏의名演出로이울리 果然半島興行史上의最高新記錄을지고도남는것을斷言합니다 好機를잊지마시고 …… 判斷하소서
喜劇 蓬萊山人作 低氣壓은東쪽으로? 一幕
悲劇 目不忍見 一幕
悲劇 南宮春作 男便의貞操 三幕
▲次週豫告▲李雲芳作
悲活劇 雪野의鍾 全二幕
悲劇 一夜靑春 全二幕
悲活劇 落花時節 全二幕
海洋劇 海賊船 全二幕
社會劇 檢事와死刑囚 全二幕
◆韓國每日交換上演
間幕 스켓취、獨唱、民謠、댄스
主幹 金 龍俊
每夜八時開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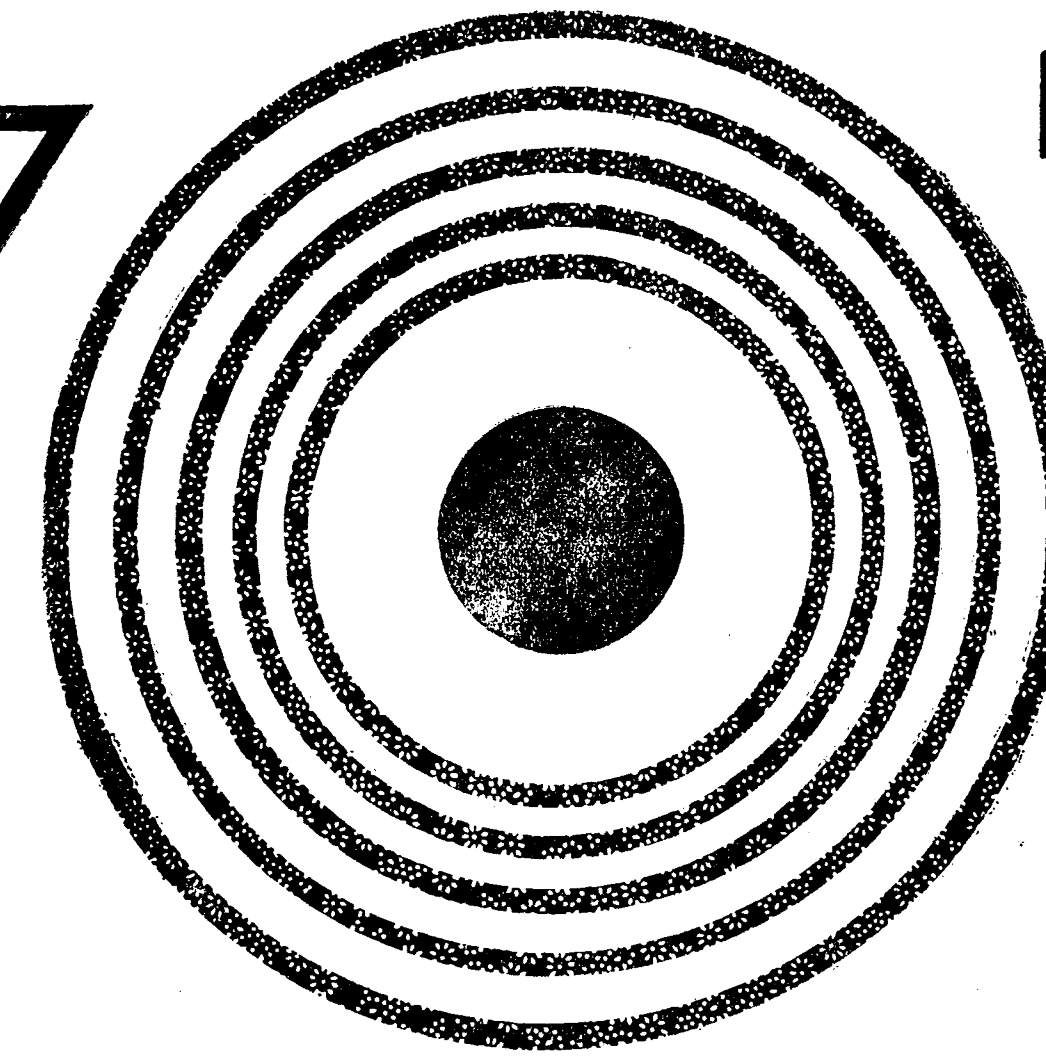
東洋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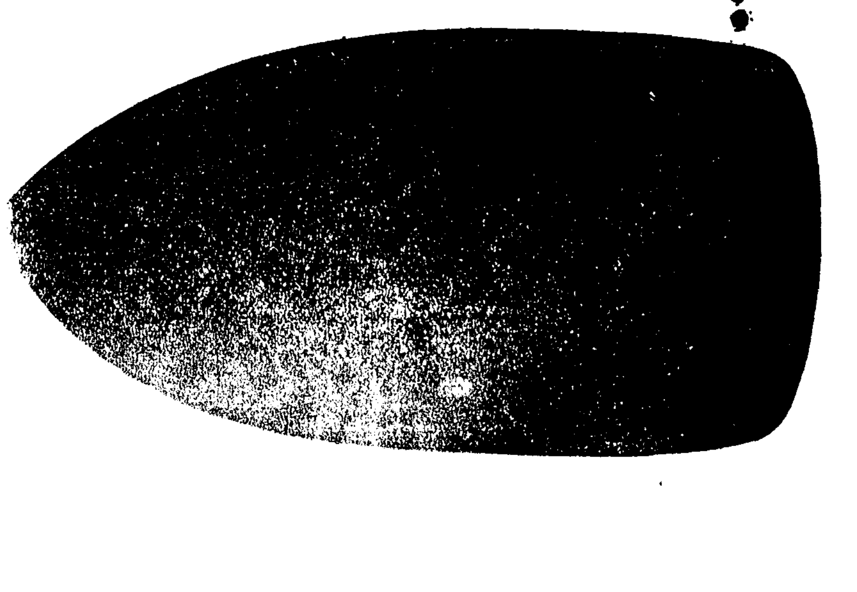
◇六月一日부터三日間延期興行!
劇團靑春座第…回公演
◇連日滿員御禮!
料金割引十錢均一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八七七番
◇五月卅一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晝夜三回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밤七時半부터
料金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三大巨彈的大名畫大公開!!
◇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版!!
돈코리쓰決死的猛演……
진코자-쓰助演
監督…크리프쓰미쓰氏
連續活劇 無敵슈-포쓰 後編十二卷
◇冒險의絕頂!活劇의覇王!古今을通하야比類업는天地粉碎的大
マキノ超特作オール・トーキ映畵!!
時代劇 俠艷綠
監督…廣瀨五郎氏
主演…原駒子孃 野津務氏
全發聲 뉴-쓰 全一卷

快巨彈的中





체중
속병
특효약

世界的名藥
겡오ー

세게제일
가는선약

鎭痛
補胃
消化
蘇生

체증속병엔 겡오ー가제일

이러한 큰탄환이라도 잘드러맛는다 백이면백 천이면천 꼭꼭 드러맛는다

위장병은엇더한병인가

◎만급성위장가다루(胃腸加答兒) 배가장아푸고 설사가나고 속이불편하고음식맛이업는분은 겡오ー를쓰시오

◎위 약(胃아도니ー) 음식에 장 언치고 첨이괴이고 음식맛이업고한증세에 겡오ー를쓰시오

◎변 비(便秘性腸加答兒) 뒤가조하고 순하지안코 배가장불편하고 두통이나고 기운이업는증세에 겡오ー한제로잘낫습니다

◎위확장(胃擴張) 음식을먹어도 헛헛증나고 배가부르고 가슴이아푸고 몸이마르고 설사가나고 음식을대하면 먹기실코한증세에 겡오ー를쓰시오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음식이 내릴때가되면 가슴이아프고신물이 올나오고가슴이 쓰리는증세에 겡오ー를쓰시오

◎위괴양(胃潰瘍) 물만마셔도 도로올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아모것도 먹지못하고 파리한증세에 겡오ー를쓰시요

◎위하수증(胃下垂症) 헛배가부르고 밥이나리지안코 가슴이 갑갑하고 소화가안되는증세에 겡오ー를쓰시오

◎위장결해(胃腸結核) 배가항상아프고 몸이파리하고 구미가 업고 설사가나고 뒤에피가나오는 증세에 겡오ー를쓰시요

◎식욕부진(食慾不進)

◎식욕결핍(食慾缺乏) 음식맛이업고겨운이업고소화가안되는분은 겡오ー를쓰시면살이찌고 음식이숙

主治効能 겡오ー의효능

만성위장가다루(慢性胃腸加答兒)
위괴양(胃潰瘍)
위아도니ー(慢性胃弱)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위하수증(胃下垂症)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급성위장가다루(急性胃腸加答兒)
식욕업는데(食慾缺乏)
소화불량(消化不良)
위확장(胃擴張)
기타위장병(其他胃腸病)

세게에서유명한 헤췌라는약제도만히들고신발명한 귀중한재료만 만히든약이오

자미잇는문제?

만성위장병、즉 구차나급체가잇서서약을써야할때 엇더한 약을써야 당장에 나을가? 생각하야 이것이 제일조타는약이무엇일가 만일『겡오ー』이상가는 약이잇서서 그약명과내용을가르처주시는분이게시면 충분히사례하겟습니다(가장조흔약을팔어야 영업이흥왕하는법임으로)

겡오ー에대한고마운말슴의일부

▲해주군장곡면장 말 삼신산 불사약운운

▲충북진천김경중씨는『겡오ー』가업섯스면나는칠팔년전에벌서죽엇슬것입니다 그리하야지금은출타할때마다준비합니다

▲경기도강화안정균씨는 사십년된 체증이운권청천운운

▲경성시내 김순길씨는나는 몟번죽을것을『겡오ー』로 사러나고사러나고하엿소등등부지기수다

무병이 장자오 신외무물이라 몸이 불편하면 황금보옥이태산가튼들무엇하며 속이압푸면 진수성찬이압헤늘비하야도무심하다 음식을먹은것이잘소화가되여야 음식이맛도잇고 먹은것이 살로가게된다 몸이튼튼하고 정신이좃코 만병이훗터지고 무슨활동이든지할수잇다 세상에병으로 고생하는분은모다 처음에는위장병이 원인이되는것이다 위장이약하야 속병이니소화불량이니 체증이니 적어니 가심아리니헛배가부르니 냉배를알느니 신물이올나오느니하야 고생하시는분이 위산이나 소다나약재료가낫버서화리나 만케하야 파는약가튼것을 써서점점위장을약하게하고 중독이들고 다시 도지고 약만떼면 또아푸고하야 돈만허비하고 약을 언제든지 떼일줄모르고 세상을비관하시는분은 신성당『겡오ー』를 쓰시면 아모리 오래고 위중한 속병체증이라도 잘듯습니다

약효를사실로증명하는이감사장을보시요절대의자신을가지고권고합니다

服藥分量

갑약
완고증(頑固症) 오원
중 증(重症) 삼원
경 증(輕症) 이원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중심하면오원분한제가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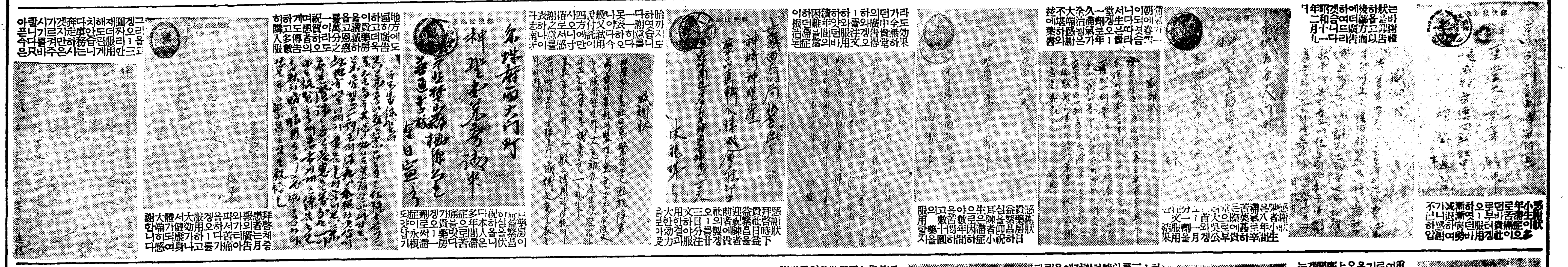
속병체증약중에갑시제일만흔약은겡오ー뿐인대그만치약이고급품임으로병이근본적으로급속히잘듯고몸도보하야건강한행복을엇게되니약갑보다몟천배의소득이잇슴니다 각이라도속히이행복을잡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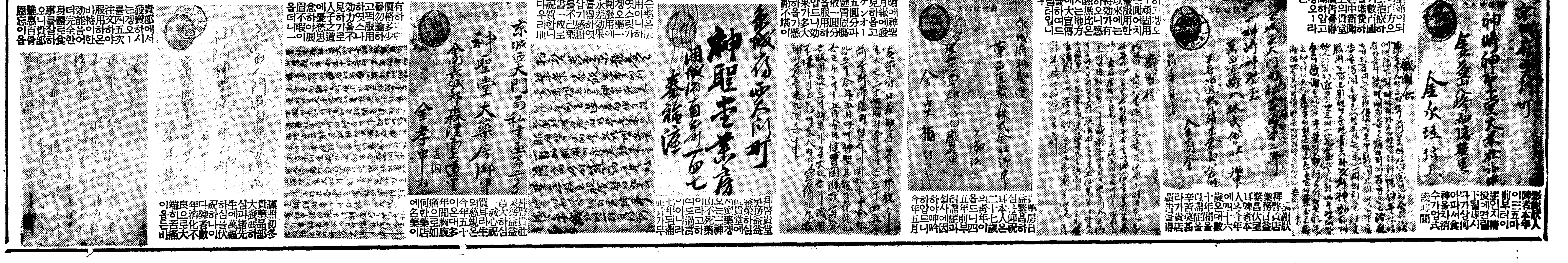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신축백오양관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一〇七七
振替京城四九五〇番

001194

약을써보시고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짐니다

물가가점점폭등하여가니지금곳안쓰시면약갑이몟배나올릅니다가정상비약으로도꼭필요합니다





나루人배

불량소년소녀는 어떤가정에생기나

부모의나이가너무틀려도안돼 삼형제중에서는"둘째"

불량소년소녀가 가정의 결함때문에 생겨난다는 견해는 벌서 일반화 되어잇는일로 즉 이불량아의 대부분은 가정적인 결함이 가련한 어린소년의 마음을 상하게하야 반역아의길로 쫏는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해서 가정이라는것은 둘도업는 위안소요 또 성장발육을 위해서 업서서는안될 정신적영양을 주는곳입니다 이만족을 가정에서 엇지못한아이가 자기의 가진불평을 거짓말 또는 지나친 공상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집을나와 도망질치기、홈치개질、불싸질르기와가튼 무서운 범죄에까지 빠지게되는것은 당연히 생각되는결과 일것입니다 한말로 가정적결함이라고 하지만 그결함은 입체적으로 고찰해서 어떤점에 원인되는가를통계적으로 말씀드려 보겟습니다

부모의년령

불량소년소녀의부모의나이를 일반소년소녀의 부모와비교해보면불량아의 부모는大개 혼인한사람이만코또아버지와 어머니의연령의차이가보통아이의부모인 五·五四에대해서 一〇·三이란 이배나되는차이를보이고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아버지보다나이가만흔것이 一二五퍼ー센트를 점령하고잇는것으로보아서도 결혼의성립의복잡성을 상상할수잇습니다。

나이차이로보면 예사스럽 아홉살까지 틀리는 내외가 잇는즉 이런사람들은 재혼 삼혼、또는가끔파혼하고또결혼한것을짐작할수잇습니다。

부모의건강

그다음에는 불량소년소녀의 건강상태를보면 대체로나쁜편입니다。 그리고 그부모의 건강을 아려보면 아버지에게는 신경계통의병을가진사람이만코 어머니에게는 호흡기계통의병이 제일만습니다 이한가지 사실만가지고본다하더라도 그가정이 얼마나 우울한기를 가젓나하는것을 족히알수잇습니다。

부모의직업

부모의 직업으로보아서는 반기술적인 직업을가진 어버이의 자식에게 가장만흔데 근육로동의일이 대부분이요 지식적인직업에 종사하는편은 극히드뭅니다。

경제상태로보더라도 한달수입이 오십원 이하인것이반분이상이고 열배오십원이상인것은 一三、二퍼ー센트인데 여것으로보아 구차한집아이에게 만흔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주할수업는형편인집보다는 오데케 그냥저냥먹기는하나세상에체면을세우면서 나갈도리가 업는정도의가정에 제일만습니다。

이러케부모직업에 관계되는동시에 부모의 교육정도에도 관계가큰데 무식한집에서 불량아가 만코 대개보면 중도퇴학한아이가 만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부모가 자식의교육에대해서 무정견한것도 알수잇습니다。

부모의유무

부모가 잇고업는것에 또 한큰영향을줍니다。 홀어버이미레서자란아이는 전체의四四퍼ー센트、그중에 아버지미레서만자란아이는 一九、七三퍼ー센트、어머니미레서만자란아이가 四、三五퍼ー센트、어머니아버지가 다업는아이가 이외에도 一三、〇三퍼ー센트나되는데 불량소년소녀가 얼마나 가정의사랑에 굼주려잇는가를알수잇습니다。 그런데 어들어머니아버지는 죽은것이아니라 행방불명이라든지 혹은 이혼을햇다거나 다른무슨일로 생리별한편이상당하게만습니다。

부모와 따로떠러진연령을 비교해보면 아버지와떠러진 아이는 열두살이상에 만코 어머니와떠러진아이는 어렷슬적이만습니다。 이것을가지고생각해보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려서어머니의사랑이필요하고 커갈수록아버지의지도가필요해지는것이 명백해집니다

형제의수효

형제자매의 수효를노코본다면 외아들과 외딸에게가장만코 그다음이 삼형제사형제 육형제 삼형제칠형제이순서로 되어잇스며 출생순서를노코보면 첫재아이둘재아이 셋재아이 이러케되엿습니다 즉 맛자식에게불량아가 제일만히 난다는말씀입니다 그런데 삼형제만인경우에는 가운대아이에게만습니다 이것은 일반으로삼형제가운데 첫재와 끄테아이가 어느가정에서던지 위엄을 밧는것이추치되며 또 외아들외딸에 불량아가 만타는것은 사생아가만타는것으로도 생각하서야될니다

이상의통계에의해서 아가나오는데는 이만한환경적소인이 잇섯다는것을 알수잇습니다。

전도 유위의소년소녀를그릇된길로 들지안토록 가정과사회가 협력해야할문제입니다

파라솔세탁법

벌서 파라솔을 들고 다닙니다 작년가을에 조금도때가못지 안케스리라하고 감추어두엇던것을 요사이내여보면 뚜박게 때가만히 무덧슬지도 모릅니다 그냥들고 단이기가 거북하면빨래를하여야겟습니다。 비단농속으로 만든파라솔을집안에서 간단히빨래하는법을 가르처드리겟습니다 먼저 벳살이쪼이지안는곳에 펴노코 물을조금식 추겨둡니다 그래서 솔로가볍게 문지르다음 비누물로 씨처고 몃번이던지 새물을 가저가면서씨처야합니다 마즈막으로 조산(醋酸)을 물에타서 맑은가ー제나 솔로문질러서 그물에말리면 됩니다 여기주의할것은 애초의반빗이틀로 한번추긴다음에 비누를칠하야만 얼룩이가 지지안습니다 주속이아니고 묵으로짠파라솔이면 이방법으로 더간단히빨래가됩니다

가정의학

애못낫는고환염

문 삼십세된 남자이온대 결혼한지 십이년이나 되엿는대아직아이를 낫치 못햇습니다 약십년전에 림질에걸려 또 고환념까지 하엿습니다(靈光 一讀者)

답 아이를 나치못하는것은남자나여자가 어느쪽에든지 생식기에 결함이 잇는 까닭이겟습니다。 당신은 림질을 알코 또 고환념을 하엿다니 아마 당신에게 그원인이 잇는것갓습니다 고환념을 아르면 정충이 나오는 길이 막혀버리는까닭에 정액은나와도 정충이 나오지못함으로 임신할수가 업습니다。 만일 고환념을 한편짝만알코 다른한편 고환이 아무렇치도 안흐면 상관이 업습니다。 만일 두쪽다알엇고 또 십년전이라면 곳치기 어려울지모르겟습니다。 전문의사에게 정충검사를 다시해보시고 의론하야 치료해 보십시요。

(城大病院皮膚泌尿科 鄭鑄澤)

누른재셋식든 이상한큰닭알

예인주의 아일랜드돌즈지방에 농사짓고사는 칼 노인은 부업으로 닭을치고잇섯습니다 그래서 그닭알을파려서 담배를 사서피우는것이 하락으로되여잇섯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닭이 누른재가세개식한데부터잇는 큰닭알을 작고나흐므로 이상한닭알이니 갑슬만히바틀러이다 하고장에가지고나갓습니다 그러나 이지방에서는 닭알이 굵다고비싸게사는것이 아니라 낫수로헤아려서 사는풍속이잇슴으로 큰닭알이 아모보람업시되엿습니다

귀아리잇는애기 귀소제하는법

어린애기에게 귀아리가 잇스면냄새가 몹시날뿐더러 자연히그자리가 불결해지니까 자주깨끗시해주어야합니다。 더욱이것은애기가 외이염(外耳炎)가튼때검린경우에는 깨끗이 흠여주기도어려운것이니 만일잘못해서 큰이생기게할말이면 더욱악화되기쉽습니다。

◇

귀속을 닥거주는 정장한법은몬저탈지면을 가늘게꼬아 그것으로 귀안의 고름을 씻서냅니다。 그런다음에옥시풀과물을등분해서 탄것을 또탈지면에 축여서 귀개나또는 약방에서파는귀후비는 밥숨애약붓게해가지고닥거줍니다。 이런케솜을 두서너번가래다거주면 냄새는덜해지고정결하게됩니다。 그뒤에는 아무것도안부친 탈지면으로 또솜처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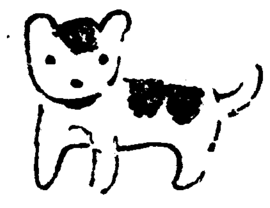
이남구저남구

봉숭아、맨드래미、해바래기가튼 뚤아페 심은화초는 일년박게 못산다。

가을되면 무슨나무던지 누ー러케 또는 붉어케 물들엇다가 떠러진다。

그러나 소나무는 사철푸르다。

(글쓴사람 박종순)



長篇小說 찔레꼿【47】

金末峰 作 金熊超 畵

물래박휘세상 一

정순은 조두취가 왓슬때 왜 좀더 냉정하게 선후를재려 말을못하는고하고 자기의경솔을뉘우첫다

제일요긴한 토지경매에대해서는 아무말도 아니한 자기자신을 원망하고 잇슬때다

『아이 오늘은 바람기는 잇는대두 왜이러케 더울가 오늘 어 아마 복으로는 마지막이조?』

하고 들어오는이는 뒷방에잇는 침모 박씨다

『오늘이 복이든가요?』

하고 기운업시 대답을하는 정순을 더려다보고

『그럼으요 오늘이 유월이유월열하르니깐두루 그러초?』

하고 빼드렁이발침모는 손에들엇든 태극선 부채를 휭렁휭렁부치면서 정순의 방으로 드러온다

『선생님 다른게아니라요』

하고 부채로 정순의 목덜미를 부처주면서

『거저 남의집에 잇자면 여속 저속 다썩어빠저야 하는거야요 오늘일만허드래두 머선생님이 잘못한게야 잇나요』

침모는 고개를 내미러 복도를내다보고

『하두 변덕이 죽끌붓하니 글세어떠겟니까……나두벌서 어집에와서 다섯해나 됏답니다 아유ー그 속썩는말을 어루떠케 다허겟서요』

『다섯해나 됏서요?』

정순은 다섯해란 긴세월을 그무서운 여인아래서 견디여나온 침모의 인내력에 감탄하는것이다

『그럼은요 만내해반이니깐두루 안그래요? 난아까도 어멈에게서 선생님이 짐을 챙기신다는말을듯고 속으로는 이걸막욕을햇답니다 이걸』

하고 자기의 색끼손구락을 세워보이고

『그래도 선생님 이늙은것의말을좀 기피들어보세요、속담에 개천나무래지말고 눈머럿만하래다구……거저업는놈은 섧두업스니깐요 거저 꾹눌러찬고살아봅시다 어게말이유』

침모는 또색끼손가락을 세워보이고

『선생님을 붓드러 달라구 그리는구랴 허허허모두가 다자기의 잘못이구 그리는구랴그러니 어떠키우 항자(降者)는 불살(不殺)이라 그저 눈질끈감고 눌러잇는수박게 안겟수? 선생님、』

『…………』

침모는 잠자코 안저잇는 정순의 한손을 뎁석쥐고

『선생님 저얼굴을 보시더래도거저 어번한번만 눌러안지십시다、나두선생님연갑에나는딸이하나잇다우 그래그런지 난 선생님을 볼때는 꼭내딸가튼생각이 들어요 노여마세요』

하고 정순의 얼골을 더려다본다

『아이 따님이 게시는구먼요』

『잇스면 얼마나조캣수 그변이란자가 사나위서홍유ー』

침모는눈을 슴벅슴벅하면서

『나도 아들하나 딸하나 오누이를 나서 길르면서도 쇠풍어미짓을 못한건이나조 아들놈과 딸년을 다고등학교에까정 너어끼든요 그래든것이아유ー속상해』

『그래 따님은 어느학교를 나왓습니까?』

정순은 차침 침모의말에흥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말마우 고변이 상학년꺼정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왓지요』

『건왜그랫든가요 학비가모자랏든거조?』

『그런것도 아냐요 거저그런사정이 잇섯서요…아이 비려먹을거 이왕말이낫스니 말해버리지머 글세어떠 중학생놈허구연애를 허다가 글세이러케됏구라』

하고 침모는 배부른 신용을해보이는것이다

『저런、그래지금 그중학생하고 가치잇습닛까?』

『말슴마시우 그리면 외려낫게요 연놈이 갈라젓조、아이는 놈팽이 어미가 대려가고』

『절어째 그래따님은 어떠케됏서요』

『글세 안되는놈은 자빠저도코가 깨진다구 아그럴뜻한대루 끌라서 시집인가 먼가허구보냇드니 아글세 게집이잇조』

『아이 저를어째 가엽서라』

『흥 그러니 허구한날 팔자한탄만허구 제외라머리에게서는 치밥만 어더먹고잇지』

『아이구 딱한일도잇지』

『이왕버린몸이니 저이동모들처럼 카페가 어덴가하는 곳의로라도가서 돈을좀버려보겟다구허지만 어데찾아 그럴수야 엇서야조 그저죽으면 안저죽어지홍유!』

『그래 아드님은 무얼 하신낫가요?』

정순이가 점점흥미잇게 듯는 눈치를보 침모는 신이나서

『글세 아들놈은 글세팔자를 잘못타고 나오면 할수업는가바요』

『아니 침모마누라는 신부템은 어떠커구 자기팔자한탄만하는거요?』

침모가 손짓을 하여가면서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잇슬때다

하는소리가 두사람의 등뒤에서 들려와다

『아유 마님마님 어게웬일이세요어째 여꺼정 나오셧서요』

침모는 안질부질 붓채를 드리고 방석을 땡겨놋는다

『웨누굴 어대눈맹이로만 알앗든가?』

하고 마른나무가지가티 파리한 말로 치마폭을 안고서잇는 경애어머니아페 정순은 등의자를 갓다노한다

『아이、고마워라』

하고 경애어머니는 교의에 들석거대안즈며

『안선생、이런말하면 어떠케 드를지는 모르겟소만 난 오늘부터 안선생을 내 친딸과 가티 생각하고시픈데 어떳소…아이들도 인젠 정말 친동생들로 생각하구 그래주시우 나야 산들 얼마나 살겟수 정말 난 병신이니까 호 ──』

하고 한숨을쉬는 경애어머니의 눈에는 하ー얀 눈물이 맷치는것이다

『아이 마님 왜그런말슴을 하서요 마님』

침모는 적삼고름으로 눈물을씻고

『선생님 그래내가 무어라고 그럽디가 그저재하자(在下者)는 유구무언이니깐두루 무슨뉴즈럼을 하시더래도 꾹눌러잇자구안그럽디가』

하고 침모는 벌떡이러서드니

『이건 웨나와잇서』

하고 정순의기방을 한손에들고 복도로 [illegible]

부인병은

낫기쉬운봄철에 빨리곳처버리시고

따뜻한 봄바람이 가벼운 옷자락을 나빗기는 지내기조흔 이때를 남과가티 질겁게 보내주십시요

東京木村病院長 醫學博士 木村仁

부인에게 제일무서운병이 무어이냐고 뭇는대면 부인과전문의사인 나는 서슴지안코 부인병(자궁병)이라고 대답한다 부인병처럼 고통을주며 불행케하는병은 업슴으로 부인병에 걸린줄을 깨닷게되거든 하로라도 급히 조속하과 적당한방법으로 치료하는것이 결국은 고통과불행을 적게하는것이다 그러면 부인병에 걸린것을 어더케 아느냐하면 다달이 잇는月경이 업다잇다하며 날자가달려지고 분량도 적다만타하며 대하증(냉증)이 생거여 처음에는 희든것이 점점누른것이 나오게되고 악취가뭄시난다 또는 아래배와 허리가 땡기고 쑤시고 아푸며 손변이 자저지고 다 누어도 시원치안으며 국부가 쓰라리고 가려워지며 손발이차고 두통현기가나며 얼골에 화색이업서지고 눈거미가 검푸른게되며 수태를못하고 혹시 수태해도 곳낙태가 되나니 이상과가튼 증세가 부인병이다 또는 부인병은 엇더한원인으로 걸니게되느냐하면 병균이 국부로부터 드러가서 부인의 복잡한 생식기관이 병균으로인하야 상처가나서 자궁속 모든기관이 고장을 이르킨것인고로 그곳에약을 느어서 치료하야 병균을 죽이는동시에 상처난곳을 아물게하고 고장생긴곳을 곳치면 곳낫게될것을 흔히먹는약을 쓰나 먹는약으로병을 일시적 가볍게할뿐이요 결코낫지는안는다 또는 넛는약이면 다조흐냐하면 그런것도안입니다 전국각대병원에서 사용하야 만흔부인병환자를 구해주고잇는『와세도球』를 진심으로 권하는바이다 부인병은 의사전문약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치료하야 병원과 똑가튼 효과를 엇는약이라야만 낫는것을 단언한다

부인병은 약을국부에 느어서 치료하는것이 속히낫는방법이요 넛는약은『와세도球』를써야만 꼭 낫는다는것이 요지음부인병환자의 평판이되고잇습니다 왜그러냐하면『와세도球』는日本全國各帝大病院과朝鮮全道各道立病院及各私立大病院婦人科에서 사용되고 잇는약으로 병원에못가시는사정에 잇는부인병환자를 위해가정에서도 손쉽게간단히치료케하야 병원치료와 틀림업는효과를 엇게됨으로『와세도球』를사용하신부인병환자들이 낫다는것을증명하산까닭이오며 또는엇재서『와세도球』가그와가티 효과가잇느냐하면 약을국부에 느은지 칠팔분동안만 지내면 약이전부녹아서 병근원인 자궁속모든기관에속속드리 퍼짐으로 숨어잇는 병균이라도 꼼죽게되며대하증(냉증)이 씻처지고 모든아푸든증세가는 사러지듯업서지게되는데려가지효과가잇스니 그엇지낫지안켓습니까 그럼으로 지금까지『와세돈球』를 써보지안으신분은 하로라도 속히 사용치료하야 빨니곳처버리십시요

부인병곳치고생남한기쁨

咸興 李愛只

다달이 월경때이면 하도몹시 아픔으로 무슨팔자로 이와가튼 병을 알나하고 남편은 아해못난다고 구박이자심하야(中略)별별약을 다먹어보앗스나 수태는커녕 병조차낫지안어 쓰라린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와세돈球를쓴후 병낫고 생남하야 커가는아해를 볼때마다 그저감사한 눈물이(略)

와세돈球로사러낫습니다

全州 崔福子

부인병은 수술하면 낫는다는 바람에 고통에못의여 죽기를무릅쓰고 수술까지햇스나 도모지 낫지는안코 아푼증과 대하증은 점점심해저 인제는죽기만바라고 잇섯다가어떤날신문에『와세도球』광고를보고 의심은낫으나 주문해서 써보니 병세가나날이 달녀가며 (中略)이러케 속히나을줄은 꿈에도 생각못햇습니다

와세도球는 밤에노코 주무시면 자는동안에 약기운이전신에 퍼저서 병이낫게됨으로 남모르게 사용되는약이며 약가도홈려 예비하면 떡경제적이오니 병고에서 버서나시려는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병세를자세히 조선문으로쓰시고 주문하시면 대금이환으로 최선의방법을 알니워드리며 지급히송약해드립니다

──약가──
十二日分 一圓二十錢
廿四日分 二圓三十錢
卅六日分 三圓四十錢
百四十四日分……(病院用)十二圓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의一番 總代理店合名會社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番)

女性의新生理學副無代進呈

懸賞「尋人」

至急！여러분에게 다 期於히懇願합니다

파파인酵素應用

多摩みどり 十八세 생김희고 결이곱고 中間中背 베레ー帽子로洋裝

保津しづか 二十二세 생김희고 결이곱고 五尺二寸 젊은美人 和髮和裝

世界美人競爭에參加코저乘船豫定이던父丸出發期日이急激히取消되엿스니두사람다急히歸家하여라

本紙愛讀者에게懇願

洋行을떠나게되고잇는今日本을대표하는 人代表多摩孃과保津夫人을至急 歸國식히고저이 뜻을여러분에게 알리여찻도록하엿든바이어면瞭燎

近處에두사람의正體가나타낫거든 자！問題의두사람은누구일가？이것을通知하여주시는이에게左의規定을따라懸賞한賞品을贈呈합니다

◎一等賞品(三名樣) 天然ダイヤモンド入プラチナ臺の豪華指輪

◎二等賞品(廿名樣) 龜甲型切子彩色文字板婦人用最新流行腕時計

◎三等賞品(百名樣) 特撰眞岡浴衣地

◎四等賞品(殘全部) 藥用アモンパパヤ洗粉

◎應募規定(違反失效)

▲右影繪人物ア・モ・ン・パ・パ・ヤ 文字로表示하고잇는대婦人두사람을그代表假名으로通知하여주시오假令「アモ」라고한것가티쓰십시오

▲解答에ア・モ・ン・パ・パ・ヤ의瓶中蓋(特殊調製)를添附하야四錢切手를붙처서便紙로보내십시오이中蓋一個마다抽籤參加權이잇습니다

▲이것을發表한新聞名을書添하십시요

▲正解者多數인때는抽籤하야右賞品을贈呈

▲×切七月末日發表八月上旬東京朝日、東京日日、讀賣、大阪朝日、大阪每日紙上

アモンパパヤ는全國各地백화ー트、藥店、化粧品店、各雜貨店代理店에서팝니다

宛名 東京市神田區松住町十二番地 株式會社 杉田商店 懸賞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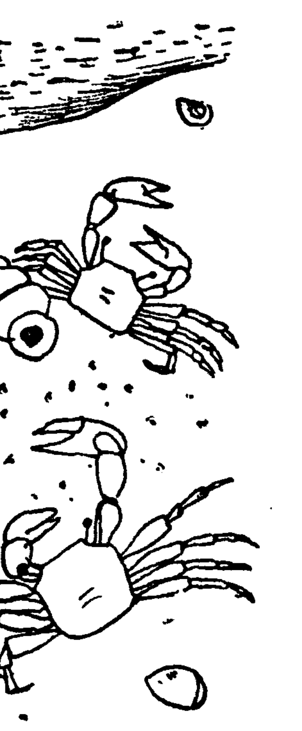
藥用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여드름・죽은깨・기미업새는姉妹品 藥用アモンパパヤ洗粉

專賣特許

定價 一號 一・二〇 二號 三・二〇 特號 一・八〇 定價 〇・三五

學藝



告發의精神과作家
—新創作理論의具體化를爲하야—
② 金南天

周知하는바와가티 文學的事業에 從事하는 사람은 어떠한 時代에잇서서는 各自의 階級의 知識的分子이엇다。市民文學은 市民階級의 知識的分子에 依하야 製作되엇다。朝鮮의 市民文學도 그의 物質的 土臺가 되어야할 市民的社會秩序의 畸型的인 發展과 한가지로 歷史가 그들에게 賦與하는 任務를 自身의 힘으로 감당치못하고 그 뒤를이은 새로운 文學的 遺產보다도 더만히 負債를 相續하야 주엇거니와 그러나 그럼에도不拘하고 그것이 市民階級의意識的分子에依하야 產出된것임에 틀림이업섯다。푸로레타리아文學은 그러나 이러케 順調로울수는업섯다。勤勞階級의 相對的 幼弱과 그들이 享有하는 文化의 貧弱의 殆無에依하야 이들은 自己階級出身의 知識分子를 文學의 領域에 보낼수는업섯다。間或 肉體的勞動에 服務이잇는 少數의作家가 登場하엿다고 하야도 그들은 勞動者階級의出身이라기보다는더만히 市民階級의 庶子이엇다 그러므로 이새로운文學의繼承과 그製作과活動은 揚棄하려는 出身階級의 文學的實踐속에서揚棄하려는 인테리겐차의손에依하야 行하여지지안흐면 안되엇다 이러한市民階級의 放蕩한不孝子息들은 이

過分한 天職으로할만한 그러나 男子一生의 새로운文學의 開拓者의任務를 띠고 歷史의우에 登場하면서 長久한 時日동안의 生活的敎養과 慣習으로因하야 뼈와살을 이루고잇는 市民的인 或은小市民的인惡意性과 優柔不斷性을 그대로가저다가集團性의미테 從屬시키고 이文學的實踐을通하야 完全히 自己自身의 固有한 柔弱性을克服할려는 努力에 專心하지안흐면안될것을 覺悟하고 잇섯다。

그러나 이러한努力에專心하기 十有餘年、오늘날의 이個人的文學傾向의 混亂狀態를 아페노코 嚴正히 自己自身을 檢討한다면 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文學家들이 把持하엿다는 文化思想이라는것이 얼마나 微弱한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입으로짓거리든 文學理論이라는것이 온전히 빌려오든物件에 不過하엿다는것을 스스로 認定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藝盟이 解散된지滿二年、일즉이 이에所屬되엿든 批評家、作家들에依하야 數만흔

文學的理論과 許多한 文學作品의 輩出을 보앗스나 어것은 暴苦가 集團性으로부터 小市民이 離脫하는 典型的인 現像을 文化的으로 具現하야주엇슬뿐으로 그곳에서는하나의 統一된文學的方向도 發見할수는업섯다。

人間描寫論에서 비롯하야 人間探究論、文藝復興의 待望論等을 거처가며 唯物史觀의 修正에 餘念이업는 白鐵氏는 無慚한 精力과 例의그칠줄모르는 饒舌을 가지고 今春初頭에 文壇의主流로써 휴ー매니슴을 歡迎하면서 長廣舌을 披瀝하엿섯는데 이것은곳傳統主義를거처 國粹主義에로 通하는綿綿한 氏의行程中의 一夜宿泊에 不過한것임을 暴露하야 結局 그것은 文壇의主流도 아무것도아니라는 告白을 吐露함에 이르럿다。다시 말하면 氏에依하야 적어도 푸로文學보다도 一層더包容性이잇고 廣은志向을 가젓다하야 文壇의主流로 歡迎되엇든 휴ー매니슴은 「朝鮮的인것」의 探究를 거처

傳統主義에로 下向하는 氏의 旅行途中에 하로밤의 寢具를 提供한것에 그치고만 것이다。휴ー매니슴에 一夜寄寓를 請하엿든 白鐵氏는 旅裝도채 풀기前에 총총히 朝鮮文學의傳統을 探究하야 神話時代로 거름을바삐하엿다。氏는 四海公論에 朝光에 各各 「文化의朝鮮的限界性」과 「東洋人과風流性」이라는 奇想天外의論文을發表하야 常識잇는이를 놀래게하고잇다。氏가 이곳에서 企圖하고잇는바는 明白하다。氏는 朝鮮文學의 傳統的性格으로 風流性을 發見하고 現代의作家를 이끌어 荒漠한神代로 돌어가게하자는것이다。科學的攝取의方法이 아니고 歷史의歪曲과 血統理論에依한 가튼 古典에의 歸依는 벌서조그만不滿도 發見할수업는 傳統主義의 寫品이다。傳統主義란 統制主義의別稱이고 復古主義의 一面이다。그는 곳 國粹主義의酒幕에到達하야 그의長久한 旅行을 終了함에 이를것이다。

漢陽朝의 政治家群像 ⑧

北進과金宗瑞

高麗以後에 異彩잇는人物을꼽자면 六鎭開拓者인 金宗瑞를 먼저 꼽어야하겟다

金宗瑞는 그號가 節齋이니 그先은 順天人이다。開國後 來緖後이 卒逝하며 太宗五年乙酉에 처음出仕하야 端宗元年癸酉에 左相으로 被禍할때까지 四朝를 歷事하엿다。

그러나 政治家로서 그의 精彩를 가장 잘發揮하기는 北方駐箚時代이엿스니 그는 廷臣으로보다 閫帥로서의成功者이엿다。

半島의 自然地勢가 機會만 잇스면 北進에 便宜하게된 바 高麗以來 人口의增加와 아울러 李太祖의 發祥地가되는關係上 北方經營에 拍車를 加하게되엿다。마침 그當時에 豆滿江畔의 女眞人사이에 內訌이 잇스므로 이틈을타서 金宗瑞는 世宗十六年에 咸吉道都節制使가되여 北疆을 開拓하엿다。그러나 아무리 天與의 好機라도 그것을 利用할만한 人物이업스면 어찌成功을 보겟든가。金宗瑞는 十數年동안 東北邊陲에서 鍊兵養士하며 疆域을拓하는一方으로 邊民을招撫하고 野人을征服하야 苦心慘澹한 結果 마침내 오늘날 寧北、會寧、慶源、慶興과 穩城、富寧等 豆滿江畔의 六鎭을 開拓하게된것이다。그러나 世宗이아니고는 이일을 主張할이업고 宗瑞가 아니고는 이일을完遂함이 업다。

金宗瑞는 그後에 드러와 兵判이 되엿고 文宗때는 右相으로 顧命의臣이 되엿든바 端宗때는 左相으로 首陽大君에게 誅殺되엿다。

그는 膽小心大하고 性尤嚴毅하야 威重果敢하므로 大虎라는 別名까지 드럿는데 그前期의 赫赫한功業이 잇슴에 反하야 그後期는 자못不振狀態에 잇섯스며 더구나 그末路가 無能하게도 逆臣의毒手에 죽고말앗슴은 可惜한일이다。만일 그로하여금 顧命의任을 다하야 端宗을 잘補弼하엿슬진대 그야말로 五百年史의 一大偉人이되엿슬것이다。

香山紀行 (六)
鄭飛石

『蝀龍窟總決算』

아!蝀龍窟!

아!蝀龍窟!

나는 蝀龍窟의 神秘와 秘密을 무엇으로 表現해야 올을가?나로서는 오직 『아!蝀龍窟!』의 感歎詞가 잇슬뿐이다

그밧게 나의禿筆이 어찌秘密의 무엇을 말할수잇스리요 心血을다하여 그의萬億萬分之一을 이야기할수잇달손 그것이 나로서滿足할수잇슬까!나는 섯불리 붓을휘두르므로써 이神秘境의 面目을 조금이라도損傷시키는 罪를犯하고십지안타

自然은 참말 自然이요 造化는 참말造化다

나더러 蝀龍窟의感想을뭇는이잇거든 나는 입을꽉다물리라 그리고 오직 가서제눈으로 보기만을 勸하리라

造物主는 地上의온갓것을마련해노흐시고 最後로 당신의秘密을 가지시기 爲하여 이蝀龍窟을 베프러노흐신것이아닐까한다 造物翁의 秘園이라고하면 고만이나 다시 나에게 뭇지를 마러라

一萬二千峰이잇드냐? 萬瀑洞과萬物相과 九龍淵이 잇드냐? 새가잇드냐? 動物이잇드냐? 多佛洞이 어떠트냐? 散花洞이 어떠트냐?구지 뭇는者가 어리석도다

그저 造物翁의 秘園이라고 하면 고만일렌데 오른까근무러무엇하랴!

아!나는 蝀龍窟에와서 비로소 造物翁의 偉大함을깨달엇다고나 하여두자!

오직 「돌」한가지로 이처럼 森羅萬象을 만드러노키란 당신만의 造作이아니면 못할노릇이니 그누가 自然은 藝術을 模倣한다고 주저넘게 부르지젓든가? 自然이藝術을模倣하기는커녕 藝術은 제아모리 發展하여도 自然을따르지도 못할거이어늘 하물며 神을 冒瀆하고 神의大秘密을暴露시키므로써 喜悅을느끼니 그래도 오히려 默笑하시는 神은偉大하도다

陽光을등지고 暗黑世界로 드려가 神의秘密을엿보기約三時간 이두시간동안의 가슴은 무엇엔가 벅차잇는대로 입은 아벌려젓슬뿐 言語까지를 이저버렷섯다

그리하여 다시出口밧게 나선때에는 結局 아무것도보지안은것과마찬가지로 가슴은 텅뷔여잇슬뿐이엇다

거듭말하노니 나는 蝀龍窟에 對하여 아무것도 쓰지안흐려다 또요만치도 쓸재주가업다 그리하여 『가보라!가서 네눈으로 보라!』고 웨칠뿐이다

神은 왜 唯獨히朝鮮을 사랑하서서 빼여난景勝을 到處에 散布하고 마지막 당신의 秘密까지를 이땅에 간직하셧는지 이또한 秘密이아닐수업다 생각컨댄 모두가 秘密이다 쥐꼬리만한 人智가 神의世界의무엇을 說明할수잇스랴? 그중에도 蝀龍窟은 보고서도 본듯만듯 무슨實感을 이러버린것가티 精神이 허선하다

우리는 行程表에따라 平壤으로 왓스나 期待하든 平壤風光에 對해서는 아무런 感興을느낄수업다

紅塵萬丈에싸인大同江이며 花郎臺의 酒席으로化한 最勝台乙密台며 이제는 舊態까지를 일허버리고 새衣裝을가추는練光亭이며 모두가 俗化하고마럿스니 나그네의 발길은 空然한疲勞를 깨다를뿐이다

十六日午前二時五分 平壤을 떠나 歸路 온 나흘동안의旅行에 우리는 어든배적지안흠다 爲先 俗塵을떨처버리고淸廉한마음을 가질수잇섯슴이 其一이요 景槪에接하여 自我를 忘却하는 恍惚境에 드러갓슴이 其二요 이땅이 이러케 뛰여나고 이江山의 精氣를 맛고난것이 우리라는 自我를認識할수잇섯슴이 其三이요 古代藝術에 새로운 驚異를가진것이 其四요 短時日이나마 團體的訓練을 바더볼機會를가진것이 其五라하겟다 그外에도 陰으로 陽으로 도움이만헛슬지니 實로 허걸음이 아니엿슴을 喜幸으로한다

허나 이로서 우리의滿足은

初夏風物詩

仁王과 三角을 뒤둘러 長蛇와가티 蜿蜒한 古城郭、風磨雨洗의 몇百年을 지낫건마는 아직도 蒼苔痕跡은 矜嚴하게도 옛이야기를 속삭인다 돌틈에도 풀은 자라고 城벽에도 나무는나서 허술하든 모양도 한결 奢侈스럽다。

이迂廻한 屈曲의 어느한구비가 夕陽에 누운漢江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를 잡길때는 또한 많이없는 한편의 敍事詩가 버러지기도 하는것이다。

不運한할멈
[illegible] 5
朴泰遠

어 할멈은 그러나 우리가 容易하게 東大門밧기라든 그러한 곳으로 移舍를 갈어들지는 안는것을 보자 될쩌며 누리 鮮前합날이 가까워 아무래도 自己가 가봐주어야만 되겟다는것을 핑게삼어 우리집을 나가다。勿論 다시는남의집을 못살겟는것이 아니다 飯饌가가 主人마ー라에게 하엿다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면좀 자주 손수 얼굴이보고 시며 꼭 東大門밧이 아니드라도 「그안」例를 들자면 「청다리께」라든지、「寒士人골」이라든지 그러한곳에도 안잡재기로 다시 들어갈 意思인듯시펏다 다음에 집에 들어온 할멈은 먼저 할멈보다 나이가 네살이나 위엿으나 일이젼點에잇서서는 늬집 할멈에게도 지지안흘께다。참말 시원스럽게 일을 잘한다。

그러나 그갑슬 하느라고、나이먹은 사람다웁지 못하게 편窩人이 輕妄되여 괘적은거즛말도 한두마디式은 하고 안할소리못할소리도 곳잘하엿다 서로 사괸지 아직도 두달이나 그밧게 안되기는 하지만 彼此 마음이라든 情味는 그만하면 알련만 그는 우리가 저를 밋고잇는것을 저는 꽉 밋지안허 假令 무엇사고거슬러온 돈을 房門턱에 노키라도 하여 零突이가 그것을치집려 한分이 안보일때

「十五錢 가슴에 오지 안혓수?」하고 안해가 부억케다 대고 말한다면 「웨 한分이 업서요? 그게 어딜갓수?」 그리고 안해가 「어디 房속에 잇겟지 어서床이나 보우。」하고 말하여도 듯지안코房으로 돌어와서는 「아니 어딜 갓나? 分明히에다가 놧는데……異常한일두다잇네。」 영사이어서 중얼거려 가며 大體 그한分의돈을 차저낼때까지는 부억케서 밥이 넘거나 찌개가 졸거나 오직 房안과마루를 헤매도는것이다。

바루 요前番에는 안해가아이를 데리고 妻家에 暫時 가잇슬때 「書房님 나 잠깐 딸네집에갓다 곳올께요。」하기에 그러랫드니 무엇을 주섬주섬 보퉁이에다가 싸가지고 大門을 나서려다 서 내房아프로 오며 「저어 아씨 안게신동안에 뭐나 훔처가는줄 아지마세요。이건 내헌고…를……」하고 느러노흔것을 나는 잘 말 마음이조치안허 고개도 돌리지안흔채 「무슨말을 그러케 한단 말이요?어서 갓다 오!」하엿다。

원악이 高人이 그러하엿스므로 情한 내맘은 엿사리 그와親할려 들지안헛다。밧게 데리고 나간다는 쩍에 떼러그에게 업히거나 안겻지 집안에서는 도무지 그에게 가리돌지를 안헛다。

그래도 우리는 別 큰허물이 업는以上 자주 사람을갈다든 그러고십지 안헛슴으로 이제 좀더 잇스면 零突이도 그와 사괴리라 생각하엿고 事實 요사이와서는 할멈이 등을 갓다대면 제법 어깨에가 매여달리게쯤 되엿스나 사람의 일이란 交巧롭기가 限이업서 그러케 어깨에가 매여달려 零突이를 업고 할멈이 바로 엽집으로 놀러 갓슬때 그곳에서 그는바루 五年前에 二十圓 빗을진채 消息을 끈혓든 中年婦人과 마주 對하지 안흐면 안되엿다。

齋洞사는 그는 참말 오래간만에 그집에를 놀러왓든것이요 그집에서는 그손님과 이할멈의 關係를 알리 업섯든 노릇이다、그時刻에 그집大門만 할멈이 들어서지 안햇든들 或은 永久히 그 빗을갑지 안허도 조앗슬지 몰으는것을 事實은亦是小說보다 奇異하엿다 債權者와 債務者는 서로 몃時間 鉛鍊한 끄테 할멈이 우리집을 나가는대로 그에게로 가서 몃해를 안잡을 자서라도 갑기로 서로 作定이되엿든 모양이다。할멈의 不運도 不運이려니와 우리는 또 사람을 새로 求하느라 苦生하지안흐면 안될께다。

五月二十一日記

詩二題
全 馨

密航

救命浮標를 나룬 간조러운 마음으로 달도업는 한밤에
떠나가는 배、
——얼음가운다。

울며떠는 港口에 남기고온 哀話도 지우려 지지안는歷史의 風景이되고、

귀시바위를 울리는 거센 波濤소리 흔들려 떠는밤이서
마서마 무서워、

오오、나의 별이여
그대는 이밤에 順坦한 航路를 일러다오。

다음날 港口의 맑은아침이 오기前엔 波濤에 녹쓰른나의船窓을 열지안흐련다。

——(舊稿)——

骨牌

喪章을 찬
金曜日의 思慕여
내 손길 熱讀은
스피ー드의 6을 재앗다。

梅花처럼 조촐한
山梔子의 꽃과
못견디게 마음씨우는
떠이야의 리리슴

내 索漠한 時間과 싸우려
骨牌는 오늘도卓上에 構圖된다。

——(一九三七、五月)——

學生作品

漢詩募集
題 落花
押 春
(限六月五日)

現代哲學의領野 (一)
中專 鄭璡

사람은 어제에 輝煌燦爛한科學을 나코 오늘에 그를 神主가티 모시어 눈마자 똑바로뜨지못하는것과 때를 가리한 이瞬間에 瞑目의 世界에잇서 『하나님』는 무엇인가(哲學的要求)를 熱心이 또 勢차게 찻고잇다함은 너머도 率直한 告白일것이며 不可疑의 時代動向이라할것이다。우리는 구태여 그歷史的이라거나 社會的이라거나의 所以然을 反問하라들것업시 오늘에 사람의 奔放하는 그情熱이 얼마나 만히 또 얼마나 猛烈히 燃燒되고잇는가를 자세자세 살피면 足하리라 우리는 어젯날에 偉大한 科學의힘을 자랑하며 그威力을 빌어온 自然의 完全征服및 破壞에 餘念이 업섯고 또 그럼으로서 주린腸子를 채우기爲하야는 사람은 生命을 내노코 덤비엇다。그러나 그살라는 몸부림——積極的努力과 決死的인 爭鬪의 所果로서 사람은 어느程度의 要求達成과安定을 차지할수잇섯던가。보라、왼갓 人間의 힘과 바람은 一抹의 水泡로 世相은 날로더부러 依然히 絕望、不安、恐怖、虛誕과 頹落으로 굴르고 사람은 제마다 不安이니 危機니의 連唱絕叫에 한時도 빠진적이업다。

그러나 그러나 이와가티 人間力이란것의 不可信과 自然力에의 不可抗을 如實히 暴露또 體驗하고 極度의 落望과咀呪의 深淵에 落入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安堵와希望에의 길이 許諾되지는 안헛는가? 一切의 不可抗力을 손쉽게 必然과 宿命으로 斷念하고마는 諦이 잇더래도 眞正한意味의 拋棄와 諦念의 참스런길을 차즐수잇고 苦生苦며 가진不安을 苦惱과 恐怖로 갓지안흘수잇는 어떤새길이 우리아페 許與되어잇다면 우리는 안다、우리가 밤나즈로 차저헤매는것이 바로 다름아닌 이것임을……。슬픔 속에서도 슬플것이 업고 괴롬에 處하야 如前한苦痛이나 하나도 괴롭지안흘것이 업스며 그러케까지 懷疑하고 懊惱하든 가진 懷疑와脅迫들이 조금치도 아프다거나 두려울것이업는 어떤 새로운 境地!아아 이瞬間이 우리에게주어지지는 안흘것인가……?現實에 억매이면서도 이에 支配됨이 업고 이를完全히 超脫하나 또한 超然함이업시 現實 잇는그대로 두는채 힘차게 싸워나갈수잇슬 어떤 새克服의길—恒常 卽하면서도 苦惱苦로 갓지안는 무슨 새로운方途…。오늘의 醫學이 이러한藥을 맨드러내려는가?아니다 또한번 科學卽形而下學의 素樸및慘敗에對하야 容赦업는 毀貶과嘲笑를 보내야할 우리는 난데업는 새 서름에싸이게될을 어찌하랴。지난날 우리가 우리의길을 形而下學的手段에서 求해어지못한것이라면 다시 우리의 새生命水 새進路를 어데가 차줄것인가。

回顧컨데 사람들은 哲學에안저서 한때 認識論을 부여안고 自身의餘生을 되마러 줄 愛獨子「피로소피ー」거나 미더 慈愛의全部를 쏫기에 아까운줄을모르던일이잇섯다。그런데 이제그날의 批評들은 어대로 다潛跡하엿스며 『어머니』의품에서 고이生長한 認識論은 完全히 長成하매 果然 사람의 所期와 豫想과가티 참된 사람의 子息(피로소피ー)이되어 어버이의餘生을 扶掖할수잇섯던가…?實로 歷史的인疑問이 여기에 잇다하겟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瞬間이나마 어떤 아지못할 世界에의 한줄기 希望의閃光을 看取하는것은 아닐가……아아 오늘이때의 우리는 참으로 새世界에의 熱烈한 關心과憧憬에 불탄다

그러면 새世界를 닭을 새哲學이 마땅히 찾는길이란 어떤것인가 우리는 먼저 現代哲學의 새로운 일깜이될것을 차저야한다 오늘의克服을 爲하야 今日 哲學의課題를 차저야한다 오로지 오늘날哲學의課題및 그解決은 그대로 오늘이라는날의 새課題및 그解決을 意味함을 알기때문이다 그럼으로 우리의現實克服에對한 全的인 要求達成의길은 오직 哲學의 오늘에잇서서의課題를 찾고 이것을 解決하는데에잇슬것을 確信하는것이다 課題란 恒常 그를 낫는 한地域가튼것을 갓는다 우리의 새哲學의崩芽는 우리의地域卽社會的地盤을 떠나서잇슬수업는데서 그領域곳領野란 한便 意向가튼것을 意味하는 때가잇다 또그러는派 그것은 따로 平野或은 原野로 불려저도 조흘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領野란말을 보다 具體的인말로 이를러면 曠野나 벌판가튼것으로 換稱해본다。渺茫한 大洋우에 뜬한雙의 船舶이나 얼마든지 달릴수잇는 廣漠한벌판을 가진「마라손」너를 생각할때 우리는 그들에게서무엇을 읽어내는것일까? 우리는 漲溢하는 하나의希望 또는 어떤理想에의 渴望이며 無限에의 憧憬가튼것을 거기서 直覺또味讀하는것이리라。果然 우리에게 晝夜로 마음껏 달릴수잇는 하나의 질편한 曠野가 마련되어잇다면 우리는 얼마나 幸福스럽게 될가。우리는 오늘에 그無上의 幸福을 享受하기爲하야 몰소 우리의 닭을길을 차저마지안는다 우리의 벌판 우리가 거기에 더부러 住하고 더부러 營爲하며 結實할수잇는 넓다란 曠野平原、우리는 人間이 創造하는 一切의 分野卽道德 學術 藝術및宗敎들이 모두 이哲學의 벌판에 연달아 뻐잇처고 또 뿌리박고잇슴을 알며 또 모든文化모든學問들이 새로히 또 生生히 이曠野를 根本으로 차저가지려는 일에서 떠나지못함을 아나니 이러케모든 學問과文化의 源泉및 根幹이되며 生命水가 되어지는 哲學이 가지는바 새로운 曠野란어떤것일가

紙上顧問

【問】小生이 자세히 알수가업기로 貴社에 뭇사오니 下敎하십시요 財團法人과 社團法人의 組織하는 如何한것시며 財團法人과 社團法人에 根本目的이 如何한것이온지 資本金이 如何하면 認可를 하야줍니가 (新義州 一讀者)

【答】財團法人은 一定한 財產을 主體로하며 組織된 法人으로 純全히 公益을 目的으로하는것(例…學校)이고 社團法人은 社員이 主體가되는 公益과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두가지의것이잇슴니다 前者는 民法의適用을 밧고 後者는 民法과商法의適用을 밧게됩니다 그리고 組織手續에잇서서는 財團法人과 公益을 目的으로하는社團法人은 主務官廳의 認可를바더야하는反面에 營利를目的으로하는 社團法人은準則主義로되여잇슴니다 金額에는法規上制限은업슴니다 (係)

【問】奔忙하신中 大端未安하오나 紙上으로 左記事項에 對하야 簡單히 說明하야 주시면 感謝千萬이겟슴니다 一、原作 二、著作 三、編輯 四、脚色 五、演出(此는 劇가트면 記錄尾에××演出할것입니다) 六、效果 七、照明 以上 (市內金潤生)

【答】一、대개 映畫의台本이나 戲曲을말하는것입니다。二、書冊으로된出版物을 이릅니다。三、新聞雜誌의 原稿를整理해서 印刷까지부치는것을 編輯이라고하나 映畫의編輯이라는 것은 撮影한 各場面의 필름을 次例대로 按排하는것을 이름입니다 四、대개 小說을가지고 演劇이나 映畫에 適當하도록 加工하는것입니다。五、舞臺우에서 演劇하는데 一切의 責任을가지고 指導하는것입니다 六、衣裝等모든 舞臺의 部分에對해서 演出을補佐하는 役割입니다。七、舞臺의 照明이니 라 陰沈하거나 光明한것이 必要할때마다 適當하도록 光線을 쏘여주는것입니다 (係)

新刊紹介

▲朝鮮鐵道協會會誌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四의一三 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基督敎報 第一〇九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健康朝鮮 第三輯(月刊) 發行所 京城府鍾路一丁目七一 健康朝鮮社 振替京城二六八一七番 定金一部五錢

▲全滿洲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五月號 新京朝日通日本總領事館構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四十錢

▲아이생활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朝鮮基督敎新聞 第五號(月刊) 發行所 大阪府布施市荒川六四九 朝鮮基督敎報社 振替大阪一〇九二六七番 定價一部五錢

天才發揚의聖戰!

第三回 全朝鮮男女懸賞音樂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演奏하되一曲은本會指定曲을 取하고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ER WANDERER (放浪者)=슈벨트

【피아노】 IMPROMPTU (卽興曲)NO.4 (作品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NO.6 (BFLAT)第一樂章=로ー데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庶務部로交附함 (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 洪蘭坡 朴慶浩 玄濟明 金元福 鄭勳謨 朴泰俊 桂貞植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團成社
廿六日夜間부터(七時) 一般有料試寫會七〇圓公開
廿七日부터特別大興行 每日十時半一時半六時半
◇콜럼비아社二百萬弗超大作 名監督 프랭크·캐프라 監督 英文壇의傑작스힐톤原作 로ー나ー드·콜만 主演
일어진地平線
어린이、어른、男子나、女子、누가봐도充分히滿足할수잇는 現代의名篇
◇世界의마스콧트、사리템풀 二十世紀特作品
템플의微笑
아마템플作品中에선그중노래와 춤과喜劇이만흔傑作이겟죠 (大爆笑公開)

明治座
5月31日日曜
上映時間
京日世界ニュース 11·00 2·55 7·00
ユニヴァサル日本版 結婚劇場 11·15 3·10 7·15
朝日世界ニュース No.174·No.17 12·26 4·21 8·26
アリイボール主演 樂聖ベートーヴエン 12·45 4·40 8·45
午前11時迄早朝御優待

第一劇場
五月三十日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名篇鑑賞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三時二十分(續映)、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유니버ー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월리암A마크가이바氏 監督에도와드레렌氏 正喜劇 自殺合戰 主演(제스다、모ー리스氏 마리온니그슨孃)
콜럼비아社特作品全發聲版 原作찰ー스로이얄氏 監督고돈、베넷드氏 西部大活劇 喧嘩渡世 主演(찔레이나ー드氏 제네바、미칠孃)
右太プロ特作品 監督 中川信夫氏 時代活劇 箱根八里 主演(市川右太衛門氏 佐久間妙子)
東日大每ニュース多數上映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中央館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ユニヴァーザル連續大活劇 ドンブリワグス氏主演 無敵スポーツ王 第一·二·三·四篇上映
大都超特作時代劇 松山宗三郎·三城輝子主演 燃ゆる叫び 前篇·後篇全部上映
一日ヨリ四日間限 〇 四日マチ 階下席十錢均一公開
永樂町 本三〇一四

優美館
六月一日부터向三日間特別大公開
와ー너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로이드베ー콘氏監督作品! 太平洋攻防戰 제ー무스카그니氏 밧트오부라이엔氏 主演 마ー가렛드린세이孃助演
極東映畫社特作時代劇 下村健二監督作品! 身代り勤王黨 市川壽三郎氏主演 櫻井京子、鳴戶史郎 花柳加代子、大海原一誠 助演
極東映畫甲陽撮影所超特作時代劇 仁科熊彥監督作品! 眞田十勇士後篇 嵐門光三郎主演 綾小路絃三郎、貴志洋子 琉波快輔、花柳實代子助演
來週四日부터 待望의 封切 平原兒·馬流浪歌隊 乞期待!
貫鐵町 電光三九五

레듸ー스・인・러브ー(네개의戀愛)에드워ー드・그리피ー스監督、짜ー네트・게이너、로렛트영、시몬・시몬共演폭스作品

演藝와娛樂

俳優難에苦悶하는 柊林
新人待望・求之不得
既成俳優人氣不向에製作者焦燥

『第二헬라가 잇서야겟다!』 이말은 지금 헐리우ー드作者들의 한숙석근 祈願이다 그反面에헐리우ー드의 俳優饑饉이얼마나 대단한것을 自白하는 것이다 事實헐리우ー드는 지금쓸만한俳優가업다 업다기보담 지금은 그만흔 俳優들 가운데 이以上더 人氣를 더 노필수업게되엿다 펜은 케ー불이 어떠니헬라가어떠니하고 宣傳해보아야 이以上더好感을가지지안코 도로혀실증을내기 시작하얏다

그러므로 여기對하야 누구보다도 敏感한製作者들 벌서오래전부터 새사람을 求하고잇섯다 이工作은 表面에드러내여노코할수업는것임으로 暗暗裡에 進行시키고잇는中이다 그러나 지금은 米國本土內에서는 될만한新人이나오지안흠으로 欧洲方面에서끄러오고잇스나 現在와가티 시몬・시몬이라던지 레이너・루이스와가티 演技上의能爛은 認定바드면서도 웬일인지 로버ー드・테일러나 게ー리・쿠퍼와가튼 好感以上의殺人的人氣를 끌수가업다。 이것은 全然白紙의新人을 가지고 宣傳과自己自身의藝로서 出世키지 안흐면不可能하게 되엿스므로 各社가競爭을 해가면서 新人新人하고 돌아다녀도新人은나오지안흐며 發見되지안코잇다 그리하야 지금 파라마운트에서는 막크레이 워ー너에서는 에로ー르・프린 MGM에서는 지미ー・스듀와ー트 폭쓰에서는 돈・아메치等을 發見햇다하고 굉장히떠들고잇스나 果然所期와가티 人氣가 노파질것인지 그것이保證할수업서서 各社幹部들의 焦燥는 날을갈사록 더해지고잇다

色다른장사……自動車賃貸業

헐리우ー드라는都市自働車가本來健全한 發展을하고 傳統잇는都市가 안인만큼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상한것이 만흠도 無理가아니다。

그가운데도 自働車賃貸業을 하고잇는 쪼!웰・하・버는 自己商會의 倉庫속에一八九九年의포ー드車로부터 各年代別로 陳列해주엇다 끄리하야 各自의請求대로 무슨車던지 應貸하기로한데 골드윈社의作品『내가바친청춘』에 主演한마ー르・오베론이라고 다니던一九二六年式의테라ー카가 所用된다고 電話를걸면 어김업시 그車를 가저다 주고 하로에 大十弗의 賃貸料를 밧는다 이商會에서는 各社에쓰던 中古車는 무엇이던지 사서노핫고 그래서 中古品하나에 四十弗만주면 살수잇는 米國의自働車가 하로賃貸料 六十弗이란 빗싸기짝이업는것이다。이商會에서는 非單中古品뿐아니라새車도 陳列해주엇는데 夜會가튼데 가는스타ー들로서 車를못가진 사람은 이것을빌려타고 가게되므로 장사는날로繁昌해지고잇다。

TODAY.S—GOSSIP 무비・꼬십

센치멘탈리즘

사람이란 언제던지 옛날의 自己로 도라가기를 조화하고 옛일을 그리워하는 人間特有의 센치멘탈리즘을 가지는것이다 옛날엔 新劇하면 依例히이사람하고 하목 처주던 卜惠淑孃? 그동안映畵에만 出演하고 한편으로 着實히장사치가 되여잇더니 요지음〃中央舞臺〃란劇團體가 새로생기자 아무리하야도 참을수업다는듯이 이劇團에뛰여드럿다。 장사는 짧고 藝術은길다ー 비록 나이는 만허도 마음은 젊어지나니 藝苑의勇將으로當然한일일지도 모른다

微風은罪를실고

五月의微風이란 어느때는뜻하지못한일을 저지는수가잇나니—紳情海峽의 女主人公金映玉 어느날 午後本町을 가라고 電車를탓다。例의『五月微風』이 등장으로기여드러 머라카락을흔드러 노흔것은 조흐나 電車의速力이 더해짐을따라 微風은회오리로 그리하야 아페섯든男子의 스트로ー햇을 벗겨다가 金孃의이마를 두드려주엇다。 푸른보리밧 우를 날려다니는 종달새의 마음과가티 대단히질거워하고잇던 金孃은 意外에 이마를다치엿스니 氣分은急轉—그러나 紳情의金孃이라 여러사람아페서 帽子主人에게 抗議도할수업슬뿐더러 不可抗力이가저온事件이라 이마롤손으로덥고 쩔쩔매기만하얏다 이것은 五月의微風? 이가저온 極히失禮스러운事件이나 모름직이 여름帽子들은 紳士들은 이것을 거울삼고 女人아페서는 애초에帽子를 버서드는것이 上策일것이다

演藝時感 學生의劇場出入 (三)

夢駒

學生과映畵—이問題는 지금새삼스러운問題가 안일것이다 京城만하더라도保導聯盟에서 學生들의劇場出入을 嚴禁하고잇다

이것이 올호냐 그르냐 하는것은 물제問題로 하고라도 대채 사람이란 무엇이던지娛樂이잇서야하고 이것으로하야금 疲困한 心神을 回復시키는것이다。學生이라하야 修道院의 修女처름 지낼수도 업거니와 工夫를 잘하기爲해서는 이娛樂이라 하는것이 絶對로 必要한것이다 그런데 이들로하야금 조혼娛樂을 가질수잇겟는가하면 當分間의 形便으로 보아서는 可望이업다 그리고 映畵나 演劇이란 不良性을가지고 學生들에게 조치못한影響을 가저다주는것으로만 더퍼치운다는것은 아모리善意로解釋해도 그릇된認識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 여기에오수운것은 音樂이라던지歌劇가튼것이 劇場以外의 講堂가튼데서 公演을하게되면 기에는 學生들이 마음대로드러가도 禁하지안는것인데 場所란것은 問題가되지안는다그上演物의內容如何에決定되여야겟는데 音樂이나 歌劇은 무엇이던지 純良하고 映畵나演劇은 머리로부터 不良한內容을가지라는法은 업슬것이다

그래서 그들學生들은 娛樂에의 追求를 참지못하야 先生이나 保導의눈을 避하야가면서 드려가서는 못쓴다는禁斷의城—劇場門을 두드리게되고 그方法을 至極히 不純하게가지는 것이다。校服을 버서버린다던지 變裝을 해서라도 普通사람과 맛찬가지로劇場出入을하게 되는것이事實이다。現在各劇場의實情을살펴보면 들어와서는안된다고規定지워노흔學生觀客의主要部類로 알고잇스며 實相觀衆의三四割이 學生임에는 놀라지안홀수업는것이다。이러케된다면 表面上의 規定이란것을 한 文句에 不過한것이며 나아가서는 學生들로하야금 先生을속이라는 衛策만을기르고잇지안흔가십다

그러므로 여기對한다른方策을세워서 이러한弊가업도록하고 조치못한 映畵는 禁하더라도 藝術로서의 純粹한것은 鑑賞하도록하는것이 조가 생각되다。이映畵가 훌륭한 敎育材料도 되며 人生生活의 기피와널피를 가르켜주는조혼것이잇는데도不拘하고 學生이기때문에 보아서는 못쓴다고하야 映畵와反對되는結果만을 助長시킬것은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라듸오

一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劇『어머니의눈물』 童心會 指導 朴興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初等國語講座 高橋平八郎
◇同八時 講演 物價騰貴와生活改善 普專教授 洪性夏
◇同八時三〇分 一、關山戎馬 二、긴아리 三、打鈴 四、寧邊歌 五、開城雜逢歌 六、방아打鈴 崔貞子 金秋月
◇同九時 歌詞 一、春眠曲 二、白鷗詞 徐珊瑚珠 金玉葉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同六時(東)講演
◇同六時三〇分(大)唱歌
◇同七時三〇分(東)齊唱
◇同八時二五分(大)漫才
◇同八時五〇分(東)歌謠曲
◇同八時五〇分(東) 라디오드라마

二日(水曜)

◇午後零時五分 京鼓立唱 一、놀냥 二、앞산打鈴 三、뒤산打鈴 四、개고리打鈴 五、도라지打鈴 六、자진방아打鈴 李命山 李命吉 金泰運 卓福萬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파리와그害毒 大學病院衛生學教室 崔羲楹
◇同四、三〇 野球試合實況(國際(京城)—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京城商業野球聯盟春季리ー그戰(但決勝이有할時)
◇同六時 (東)英語講座(三의二) 澤村寅二郎
◇同六時三〇分 兒童과先生의時間 京城校洞普通學校 一、對話劇 オ日サマトテモ (讀本卷三第八課) 二學年 二、朗讀・話・唱歌 李退溪 (讀本卷十一第二課) 六學年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 偉人의青年時代 徽文高普 金道泰
◇同八時 婦人講座 同德女高 宋今璇
◇同八時三〇分 獨唱(歌劇六曲) 一、『眞珠갑이』中에서…버제ー作曲 귀에錚錚한그대소리 二、『라・파뽀리타』中에서…도니체티作曲 로만스 三、『리고렛토』中에서…뻬르듸作曲 이것도저것도 四、『라・조콘다』中에서…폰키엘리作曲 蒼空과바다 五、『胡蝶夫人』中에서…푸치니作曲 잘잇거라、내사랑 六、『사랑의藥』中에서…도니체티作曲 남모르게흐르는눈물 崔昌殷 피아노伴奏 崔熙南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興夫歌中제비나오는데 崔熙楚 宋萬甲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箏曲
◇同六時 (城)副業講座
◇同六時三〇分 (東)童話劇
◇同七時三〇分 (大)講演
◇同八時 (大仙)聽河鹿
◇同八時一五分 (東)落語
◇同八時三五分 (大)交響劇

三日(木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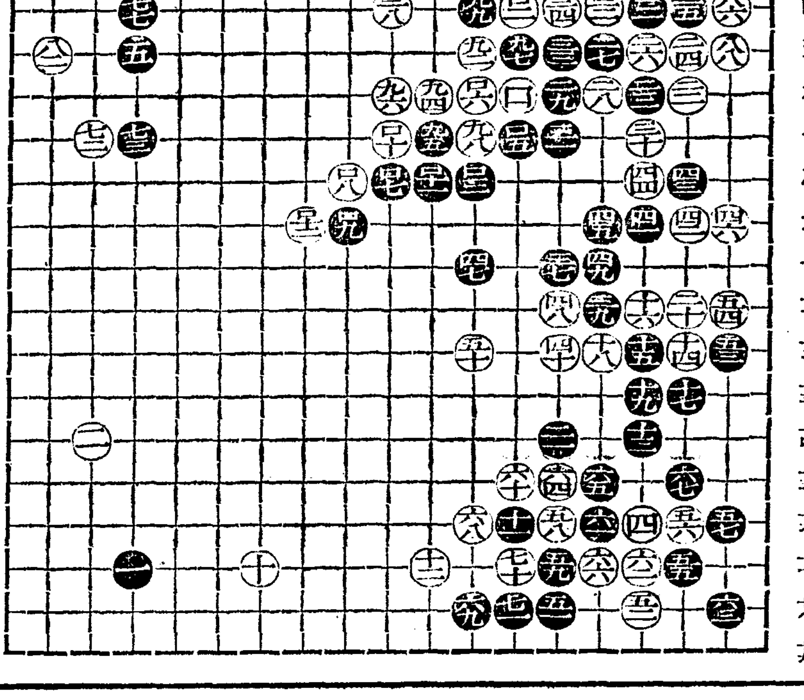
◇午後〇時〇五分(大) 木曜콘서ー트(舞蹈音樂) 一、탕고『엘・아코모ー드』…도나트作曲 二、월쓰『來日까지』(歌付)…쓰ー마와잉거作曲 三、파소도블『푸스타』…작거作曲 四、탕고『시소나시』(歌付)…로베르作曲 五、월쓰『혼로・아라마』…아고스티노作曲 六、룸박『마리메라』(歌付)…스콧드作曲 七、탕고『아디오스・아르젠친』…마스트作曲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라이거、나까、탕고앙상블 女름의園藝 園藝學院 金永熹
◇同六時三〇分하ー모니카와童謠 一、하ー모니카四重奏 아메리카巡邏兵…미ー참作曲 二、童謠齊唱 아침바다 三、하ー모니카四重奏 金과銀…레하ー作曲 四、童謠獨唱 (金貞淑) 산새가 五、하ー모니카四重奏우리아가…廉錫鼎作曲 六、童謠齊唱 七、하ー모니카 나、해 七、하ー모니카四重奏 追憶…金無鑿編曲 M・K・M研音會員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自我의幻影 佛教社 許永鎬
◇同八時 趣味講演 時調文學의時代性 京師 趙潤濟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 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界面頭擧 安鶴仙 張明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漫劇『流線型春香傳』 全景 서울스테지쇼ー 作演出 李向遠 音樂効果 嚴載瑾
—配役— 李道令……金元浩 房子……金芳釗 成春香……高龍女 香丹……崔英善 驛夫同解說…金德心
◇同九時二〇分 大笒獨奏 鳳雀歌 朴鍾基 杖鼓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大) 木曜콘서ー트
◇同六時三〇分 (城) 어린이스켓치
◇同六時 (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仙、大) 聽河鹿
◇同八時一五分 (東) 小唄
◇同八時二五分 (東) 토ー키ー
◇同九時 (東) 常磐津

棊極文觀戰記

互相修補之地에 攻擊은不可하다 白이辛의七로 黑斷取도 不美하고 黑은 辛의四 白을斷한후 庚의四로引繼하야 白三點擴援이適合하거늘 壬의三 移着이大失이아닌가 彼此間滄生計로推測하노라

●九七	庚의	五
○九八	辛의	七
●九九	辛의	四
○一〇〇	庚의	六
●一〇一	壬의	三
○一〇二	庚의	四
●一〇三	辛의	八
○一〇四	癸의	三
●一〇五	庚의	七
○一〇六	辛의	六
●一〇七	癸의	八
○一〇八	子의	八
●一〇九	子의	九
○一一〇	癸의	七
●一一一	壬의	八
○一一二	丑의	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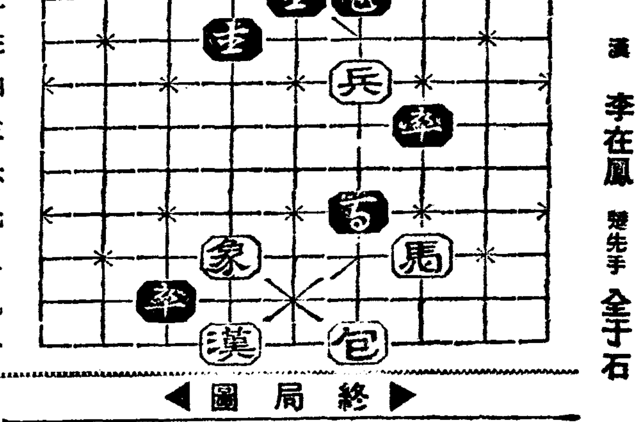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7)

互先 (白)盧史楚 (黑)丁奎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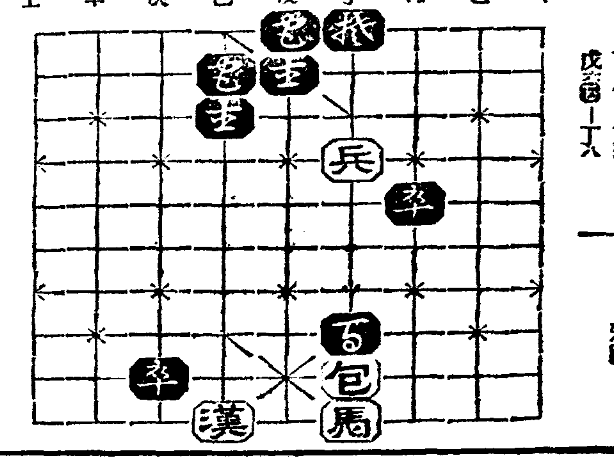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四)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百三十手圖



終局圖



丁七卒─己六打象 丁十包─丁三 己六卒─戊六 丁包─丁九 戊卒─丁八 丙八馬─丁十 丁三卒─己二呼將 ─楚勝─

장장이그림 장장이이야기 첫여름선물!

幼稚園童話集 (特輯)

▲도깨비집……朝陽幼稚園 金喜貞
▲호랑이고개……新明幼稚園 廉福仁
▲옥이와꼼둥이……孔德幼稚園 都貞淑
▲세마리곰……延禧幼稚園 李氷玉

동무 석권거 大懸賞!

필통時計大懸賞

振替京城 五八七八番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全國書店에 다잇다

단十錢

少年 六月號

絶版在近

猛獸잡기 大畫報 — 무시무시한 코끼리와 호랑이 떼를 산채로 잡나? 어와 표범을 소름끼치는 大畫報! 鄭玄雄氏의그림 少年六月號의特輯畫報!

地球이야기 沈亨弼★ — 우리가 살고잇는 이地球는 어떠케 생겨낫슬가? 재밋는 少年科學

名作童話劇 샛별집 金圭銀★

깔깔웃음大會 — 웃는門에 福이 드러온다

連載漫畫 코찡찡이 鄭青羽

▲童謠作曲 누나얼굴……朴泰俊作曲 尹石重作謠
▲色刷漫畫 낙시질……吳澤基

純情美談 백국새얘기 李孝石 — 백국새소리를 무척 조와하는 아버지! 거진거진들어가게된 아버지를위하야 백국새가되어 백국백국 울러들린 어머니의 슬픈이야기! 생의 끔고도끔운童話!

長篇童話 웅철이의모험 朱耀燮 — 땅속나라에 땅속나라로 전쟁구경 갓다 웅철이는 어떠케되나? 大冒險童話

小說 어머니찾어서 蔡萬植 — 집도업고 부모도업고 세상의 부모를찾어서 서울로 서울로 가진고생다 겪는 少年의눈물 小說!

飛行家가되려면 李…嘉 — 世界各國을 두루두루 돌아오신 李…先生의 보배로운 이야기

본받을外國少年 李克魯

健康讀本 鄭潤鎔 — 우선健康! 이것을읽으면 누구나 다튼튼해질수가잇다!

웃음짓잖는그少年

六月유두이야기…金道泰
재미나는조선말…崔鉉培
童謠・李元壽 漫畫・鄭寬澈

★기특한少年들★ ▲馬海松 ▲李石薰 ▲蔡萬植 ▲李軒求 ▲金復鎭

少年知識★少年科學★少年遊戲★少年新聞★少年畫報★少年作品

새少年讀本 曺晩植 — 七百萬朝鮮少年에게 보내는先生의당부! 朝鮮少年은 누구나 한번 읽어야할 말슴!

探偵小說 『少年』六月號부터 新連載!! 白假面 金來成 — 白白教와 한속? 쪽으로 사라지자 自働車로 그뒤를쫏는 姜永吉、朴大準의두少年! 朝鮮서처음보는大探偵冒險小說! 鍾路한복판에나타난白假面! 姜博士를말에잡아실고三淸洞。

中部版

春川에白晝大火
어름倉庫草家를燒失
損害는千五百圓·原因은失火

【春川】 춘천읍 화원정(春川邑花園町)에 백주 큰불이나서 대소동을 이르켰다 지난오월삼십구일오후한시반경에 춘천읍화원정이정목(春川邑花園町二丁目)에 잇는 천본상점(川本商店)어름곳간 초가집중에서 불이낫다는데 강풍으로 인하야 도저히진화할것갓지안헛스나 춘천소방조의필사적활동과 춘천고보(春川高普)기숙사생도들의 총출동으로루시반경에진화하엿는데 피해액은 여페동상점재목곳간까지연소하섯섯슴으로 약일천오백원가량이라하며 화재의원인은 실화이라고한다

蘇萊地方의急務
通信機關設置
一般의要望이크다

【蘇萊】 부천군소래면은 경인간(京仁間)과 수인간(水仁間)의중심지이며 겸하야 소래수리조합(蘇萊水組)과 소래대염전(蘇萊大鹽田)이 창설된이래 더욱 발전도상에 잇슬뿐외라 작년도에 전등가설까지 되엿스며 사천시장은 부천군내상대우시장중의수위를 차지할뿐외라 농해산물의 집산으로도 타지방에 못하지안흐며 교통에잇서서도 사통오달로 극히 편리하야 장래신흥도시의 기대가크다한다 그러나소래에 호수가 일천칠백호 인구가 일만여에 달하나 통신기관이업서서 불편함은 일무나설로서 삼십리를 격한소사우편소를 리용할뿐으로 급한사고가잇드라도 통신이 사오일걸리게됨으로 소래유지들은 우편소설치를요망하고 방금관계당국에 운동중이라는데 일반은 이에대한 기대가크다고한다

中堅青年講習
卅一日로終了

지난이십일이래 수원고농(水原高農)에서 개최중인 전조선농촌중견청년강습회(中堅靑年講習會)는 지난 삼십일오후한시에 종료식을거행하고 동일오후한시부터는 강습원사십오명이 경성에와서 보내각처를견학하고 삼십일일에는 총독부를방문 영화실에서아지조선농여러가지영화를 구경하고 그날밤차로 모두 향리로 도라간다

夏節雨期에압서
萬全의防疫陣
京畿道當局에서關束

작금기온의 급등으로 맘미아마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차저왓다 어때가되면 아이스케키, 아이스크림등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코무든돈을 노리는장사가 번창하여진다 그러나 이것중에는 위생적으로보아서 매우 위험한것이 만흐며 그중에도 오색이 영롱한 물감칠을하야 보는사람의 눈을 홀리게하는것들이 만흔데 이것을 함부로 내버려두면 위생적으로 큰문제이여서 해마다 경찰당국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어린이들의 식욕(食慾)은 당국의 취체를 무시하다시피하는 형세에잇다 금년부터는 거리의 음식점을 엄중취체하고자 목하경기도보안과에서는 그규측을 제정하기에급급하고잇는데 결국이것도 허가제도로하고 착색제(着色劑)용기(容器) 원료(原料)를 충분히 연구하야 『인지기』상인을 철저적으로 단속하기로하엿다

그리고 오는유월이일은 『파리잡는날』로정하고 파리를 철저히 박멸하는동시에 各家의 변소를비롯하야 우물들도 소독하야 장마철을압두고 방역진(防疫陣)에 비상한긴장을 보이고잇다

仁川府에
猩紅熱發生

【仁川】 성홍열이 인천에도발생하얏다는 소식=인천부화정(仁川府花町)일정목칠십일번지 엄인숙(嚴仁淑)(三)은 지난 이십칠일성홍열로판명되야 방금덕생원에서 시료중이라는바 인천서위생계에서는 방금 이기회를리용하야 각전염병에대한 방역에로력중이라한다

無檢查의正租파는
不正商人을告發
素砂驛前米穀檢查所에서

【素砂】 경인선소사역전에 출장소를둔 미곡검사소(米穀檢查所)에서는 지난오월 오일부로 소관주재소에 부정상인을 고발하엿다한다 이제 그내용을듯건대 지난소화십일년도부터 소사부근의 미곡검사를 엄중히취체하여온바 부정상인들이 검사원의이목을 속히여 검사를배가마니에 무검사품이 삼십석이나 섞겨서 소사역과 부평역에서 화차에실고 인천경성등지각정미소(精米)에 매도한것이라한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부천군부내면대정리(富川郡富內面大井里)박기풍(朴基豊)(四○)은 금년도에도수차나 전기와가튼 부정행위를발각당하엿스나 충고를 하엿섯다한다 그러나 섞거서팔면 다소의리익을 취하기위하야 사월이십오일경에서 인천빈정(濱町)역무정미소(力武精米所)에 발송한정조(正租)하차중에 무검사품(無檢査品) 사십일가마니를 밀적(密積)하야 보내엿다한다그리하여 인천세관에 발각되여 소사검사소로 통지가왓슴으로 금번에는 이상충고를 할여지도업시 고발한것이라한다 근일의검사국에서 처벌을당하리라한다

韓駿鎬力技實演
空前의盛況裡終幕
本社鐵原支局後援

【鐵原】 조선의자랑인 유명한력사한준호(韓駿鎬)군 일행사십명이금번 체육장려를 목적하고북조선과 만주를 순행하는 제일보로 본보철원지국후원으로 철원극장에서 지난이십오 이십륙량일간 실연을하얏는데 이일간 모다대만원으로 관중은 감격에 취하야섯다고한다

(사진은 력기실연광경)

色酒家、飲食店等에
酌婦雇傭女嚴禁
春川邑營業者는反對

【春川】 춘천경찰서(春川警察署)에서는 종래 음식점에 작부(酌婦)고용을 인정해왓는바차등영업자들의 영업상태를보면 풍속을문란케하는페해가잇고 또한요리점과 음식점의 구별이 업슬만치영업을하고잇슴으로 요리업자의 타격도 여간큰것이아님으로 음식업자와 미성년고용녀등의보호는물론풍속취체또는요리업자를 보호하고자 고용녀를 두지못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엿다함은기보한바어니와 이에찬동업자들은그가티실행을하게되면 영업을할수업게되어 생도가끈허지고 말것이라하야 지난이십륙일에관게업자들이 춘천서에 진정까지한일이잇섯는데 이에대하야 좌등(佐藤)춘천경찰서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佐藤春川署長談

고용녀를 절대로두지못하게할방침을 세운것은사실이다 고용녀를 두지못하게하면 생활위협을 밧게된다고 진정까지온모양이나 그는절대로 안될말이다 음식점은 음식점다웁게 요리점은 요리점다웁게하지안흐면 안된다 음식점에서 고용녀를 수명식두고 가진짓을 다하야 요리점업자의 밧는영향은 실로 막대한것이잇는것이다그들업자의수지(收支)를세밀히 조사해본결과 『선술집』가튼곳은상당한 리익을보고잇스나『색주가』혹작부제도의음식점에는모다적자(赤字)뿐내이고잇슬것이다고용녀제도를업샌다는소문을듯고축첩(蓄妾)의형식으로고용녀를두려는게책을쓴다는말이잇스나만약에그런얄미운짓을 하는자가잇다면 용서업시 엄중한처벌을할 방침이다운운

寡婦의印章을偽造
林野九反을賣喫
賊反荷杖으로山主를威脅

【蘇萊】 부천군소래면은행리(富川郡蘇萊面銀行里)에거주하는과부김업순(金業順)(女)씨의소유부천군오정면도당리(富川郡若丁面陶唐里)에 림야팔반칠묘(八反七畝)를원등(遠藤)들이 오쇄원에 매도하야 계약금까지 바더먹고 도리혀 산주를 위협한다는데자세한내용을 조사하건대 부천군소사면 구산리에 거주하는 배순석(裵順錫)과 오정면 도당리 배명손(裵明孫)은 소래면은행리에거주하는 배오길(裵吾吉)과공모하고 전기김업순씨의 인장을위조하야 림야를 매각하였다는데남편은죽고 의지할곳업는 김업순씨의 시부(媤父)되는 배원명(裵源明)씨 명의로 김업순씨에게 가족상속이 되엿다는데배씨소생으로 지금네살된 어린기환(基煥)이라는 남아가잇다는데 이어린것과그의모가 여자인것을 기화로 그토지를팔엇다가발각되매부당한이유로써경성지방법원인천지청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적반하장으로 도리혀 산주되는 김업순씨를 위협까지하야왓다가패소되엿다 전기 김업순은 이에 분개하야 인장위조와 사문서위조로 방금 고소를 준비중이라하며 일반은 그배씨일문의 잔인무도함을 규탄하는동시에 재판의결과를 주시하고잇다

水原市民의
大運動會
盛況으로終幕

【水原】 제구회수원시민대운동회는 지난 오월삼십일 오전구시에 화성학원운동장에서 회장 량규봉(梁奎鳳)씨사회하에 우승기반환식이잇슨후 곳 경기를 진행하엿는데 관중은 물밀아치듯러 인산인해를 일우엇슬뿐아니라 각선수도 우승열패를 다투는것보다 운동정신으로 시종일관 경기를 질서정연하게 진행하는것을 일반관중은 경탄하야 마지안는 대성황으로 오후륙시반에 폐회하엿는데 당일 우승한팀은 다음과갓다

상점팀고가장행렬에상회상회, 각정대항릴레—에북정일정목, 소학교대항릴레—삼일학교, 마라손경주 정태준

(사진은 대운동회회장광경)

素砂公立普校
校舍移轉擴張
寄附金募集決定

【素砂】 약진경인선소사역전 소사공립보통학교이전문제는 본보에 루보한바와가티 금반교사이전문제에대하야 도당국의지령이 잇서서 군학교비예산액보다 초과가 약사천원에달하고 잇다한다그러나 약진소사부근에는작년홍수로 학부형들의생활이 안전치못하므로 부지지균(敷地地均)공사만을 면민에게 부담하기로 학부형회기성회에서 결정되엿다 그리하야 학부형일동은진정전상 어원이하의 기부금을 모집하기까지에달하엿다한다

地方人事

▲稻垣正藏氏(坡州郡內務主任)京城府에榮轉人事次本報汶山支局來訪

▲徐丙肅氏(坡州郡屬)楊州郡으로榮轉人事次同上

長篇小說

恭愍王 【6】

李光洙 作 / 金熊超 畫

왕은 수라를 물리시고 침전인 만령전(萬齡殿)에 듭시엇다 노국공주의 혼전에 분향이라도 하고십지마는 허다유신들이 말성이 만하서 그럴수도 업고등요를 서쪽 마루에 나시와 서악에 걸린 오월초생달을 바라보섯다。달은 꾸부러진 은칼과같이 맑고 날카로왓다。소만절저녁 바람이 찻다。후원에서는 밤ㅅ새소리가 울려왓다。

금년에는 산호정(山呼亭)모란구경도 아니납섯다。모란은 래조대왕때로부터 대궐에서 사랑하는 꽃이엇다。왕은 예종(睿宗大王)이 모란을 심히사랑하서서 자조 산호정에 문신들을부르서서 시회를 하신것을 가끔 생각하신다。그것은 왕은자기의 성격이 예종대왕과 닮은 데가 잇다고 느끼시는때문이엇다。인자하기로나 시와 그림과 풍류를 좋아하기로나 또는 나라를 한번 새롭게 잘해보겟다고 생각하기로나 또 마음이 약해서항상 정론은 없으면서도 말성만 많은 유신들의 견제를 받는것으로까지도 예종대왕과 닮은데가 잇다고 생각하엿다。더구나

오늘날 왕후가 돌아간 뒤로생각하면 왕후를 사랑하야 참아잇지못하는 점도 예종대왕과같다고 생각하엿다。예종대왕도순덕왕후의 혼전에 그러케 가고싶으신것을 유신들때문에 못가섯다。순덕왕후의 장례에 신봉문밖에 납신것이 문제가 되엇던것이나 왕자신이 노국공주의 정릉까지 가시랴다가 못 가신것이나 꼭갈은것 같앗다。그래도 예종대왕은 유신들의 잔소리도 다물리치시고 순덕왕후의 능에 가섯던 일이 잇건마는왕은 아직 정릉에 가신 일이없는것이 슬펏다。유신들은 왜구나 홍두적이 오면은 처자와세간을 피난시키기에 골몰하다가도 임금이 무슨좋은일을 하나하시려 하면 한문제가 어쩌니 당고종이 어쩌니하고 말성을부렷다。

예종도 풀도를 좋아하시면서 유신들때문에 마음대로 풀교치생활도 못하시엇다。이 점에서도 왕은 예종대왕과 같은것 같이 생각하섯다。

『내가 도리어 인종대왕과 같지아니할가』

왕은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 인종은 묘청(妙淸)、정지상(鄭知常)、백수한(白壽翰)등을 믿어서 신도와 풀도를 기초로、고구려의 옛서울 평양을 새 서울로 하고 새 제국을 건설하려고하엿다。그래서 평양에 건룡궁(乾龍宮)까지 짓고 그리로 천도할 계획까지하엿다。때는 마침 대륙에서 송나라는 쇠하고 금나라는 아직 자리가 잡히지아니하던때다。하물며 금은 본래 고려의 속국이아니냐 이기회를 타서고려가한번 천하를 통일할만하다고 생각한것이 인종이엇다。그러나 김부식(金富軾)일파의 공맹파 한족의 문화에 중독이 된 패들을들고나서『以小事大』라는 노예주의를 주창하엿다。만일 왕이 단연히 상경(上京——송도서울)을 떠나서 서경(평양)으로 서울을 옮겻더면 이 머리썩은 무리의 세력을 벗어낫수도 잇엇겟지마는그러하기에는 묘청일파의 사상이 넘어 유치하고 세력이 넘어미약하엿다。그러나 그보다도 인종대왕의 의지력이 넘어나 약하엿다。

『내가 인종대왕과 더 갈지아니할까』

왕은 거듭 이러케 생각한다 왕도 썩은 무리들의 세력을벗어나기위하야 서경(평양)으로나 강화로나 서울을 옮겨볼 생각도 잇엇다。그러나 첫재로는국력이 피폐하여서、둘재로는 유신과 권문의 세력이 넘어 강하고 자기의 의지력이 넘어약하야서 못하고 잇엇다。

때는 마츰 인종때와 마찬가지가아니냐。원은 쇠하고 명은 아직 일지못하엿다。이때야말로 대륙을 몰이처서 고구려의 구강을 찾고 천하에 호령하라면 호령할 기회가 아니냐。

『그러면 누구로 더블어? 제현? 최형? 이성계? 정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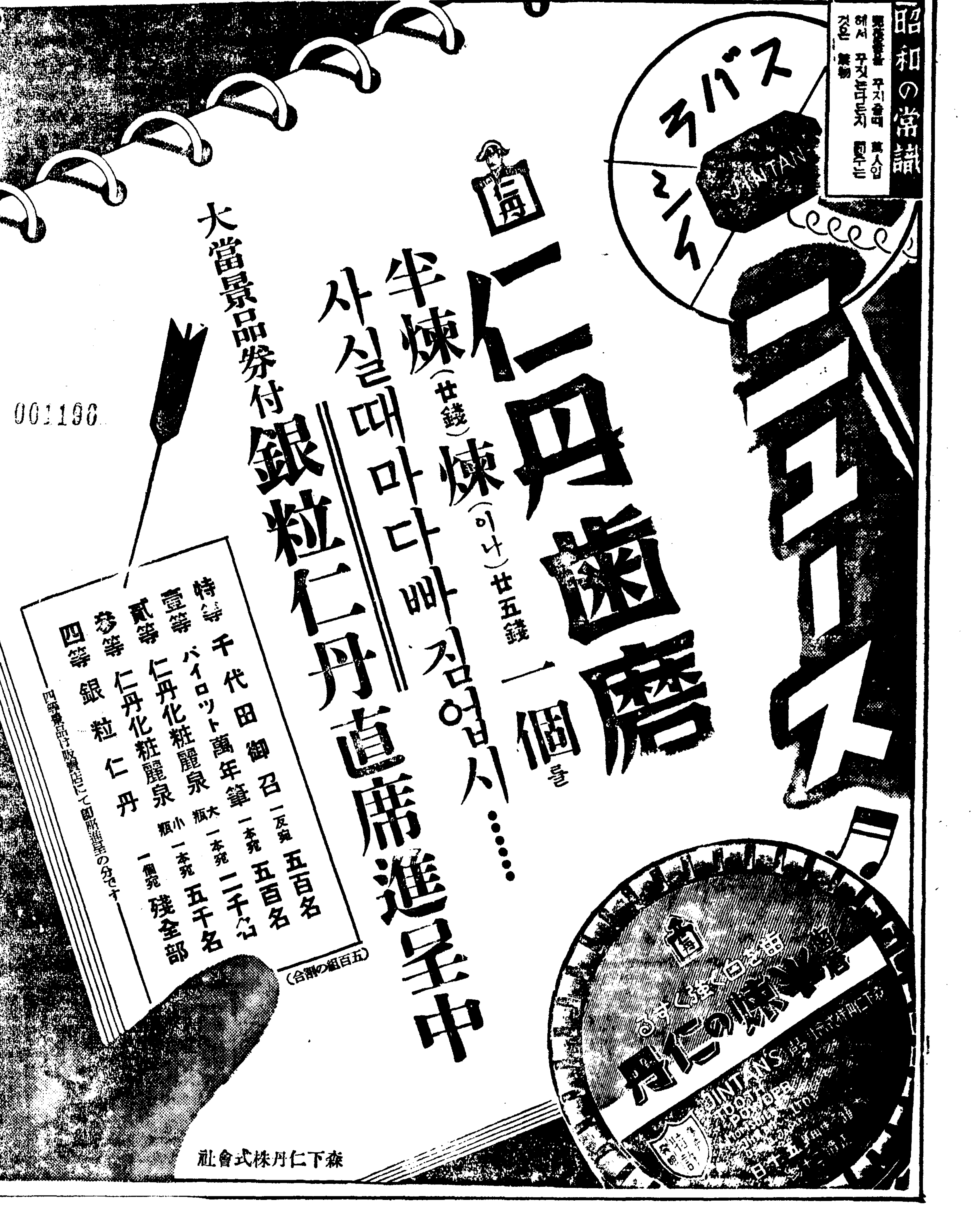
이러케 왕은 인물을 생각해본다。그러고는 한숨을 지인다。

산호정에서 솟적새가 슬피운다。

운다。

『밤ㅅ바람이 차옵니다 오늘에 들시와서 침수를 잘수시오』

늙은 지밀나인이 달을 바라보고 개신하게 엿조앗다。



仁丹歯磨一個를 半煉(廿錢)煉(이나)廿五錢 사실때마다빠짐업시……

大當景品券付 銀粒仁丹直席進呈中

特等	千代田御召	一反宛	五百名
壹等	パイロット萬年筆	一本宛	五百名
貳等	仁丹化粧麗泉	大瓶一本宛	二千名
參等	仁丹化粧麗泉	小瓶一本宛	五千名
四等	銀粒仁丹	一個宛	殘全部

四等景品は販賣店にて即時進呈の分です (五百組の割合)

001196

森下仁丹株式會社

六月一日부터價格을一割을引上합니다

小粒せんたく石鹸 ビーズ

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

慢性 急性 淋疾 ネオヂリン

定價一圓·二圓·三圓·十圓 各地有名藥店에잇다

攝生法

一、淋疾에걸린사람은患部를만진손은그當場에비누로洗滌하고決斷코눈에부비지안토록注意해야한다

二、酒類를一切禁할것은勿論炭酸瓦斯의飮料도禁해야한다

三、食物은淡白하고消化잘되는流動飮料를먹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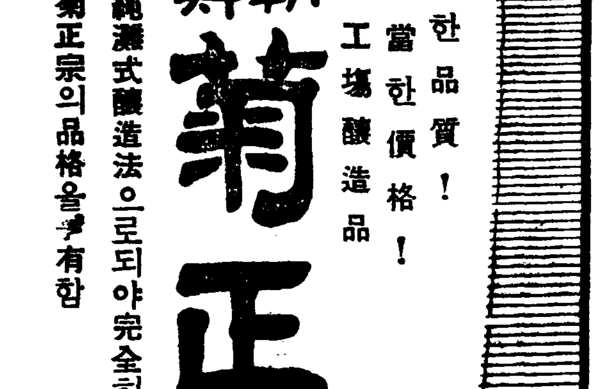
四、淋病에第一效果잇는ネオヂリン을連續服用할일

製造元 京城府本町四丁目 山本回生堂製藥所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弊店은安心하고去來할수잇는藥業界의問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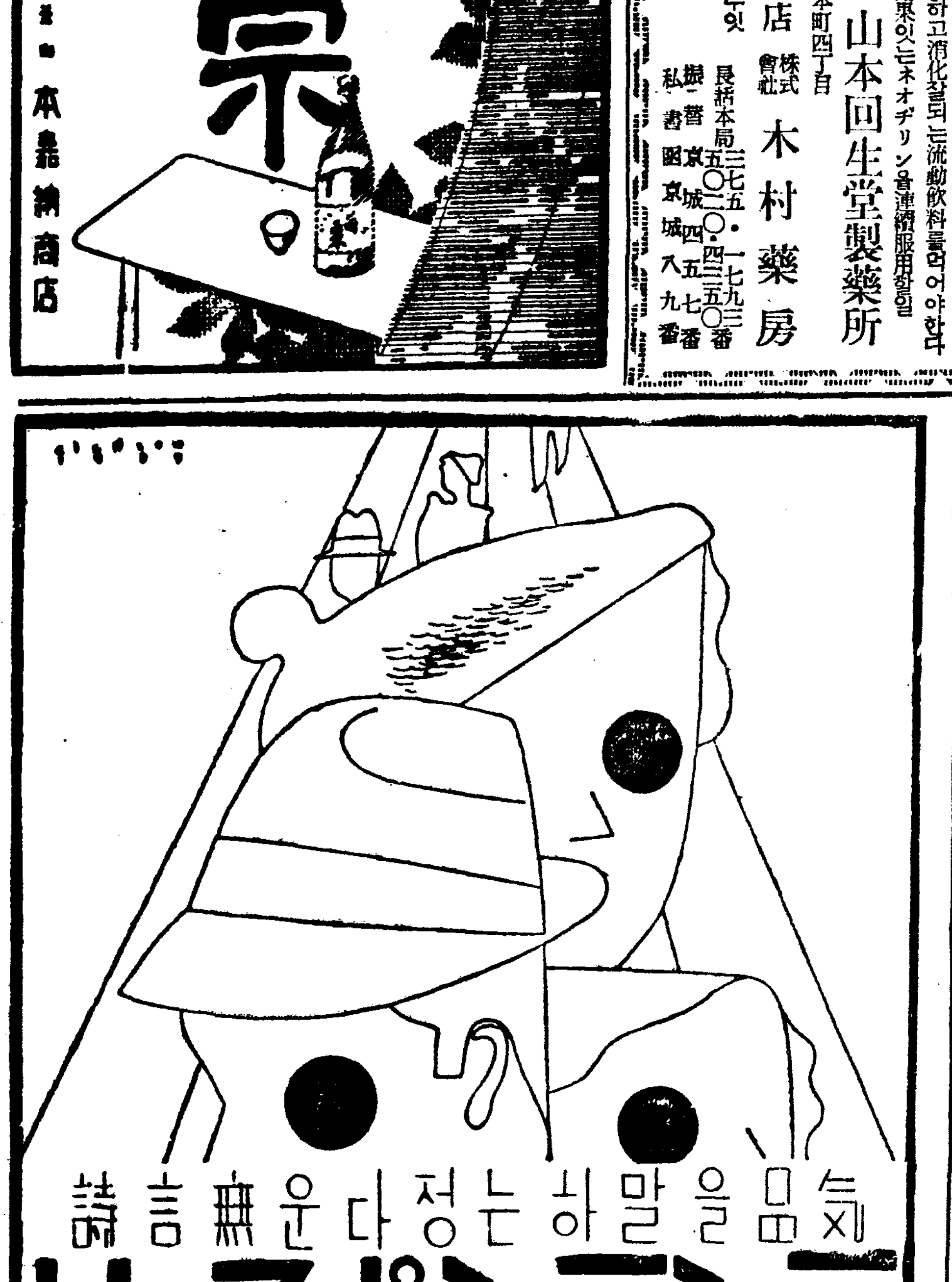
優秀한品質! 正當한價格! 京城工場釀造品



朝鮮 菊正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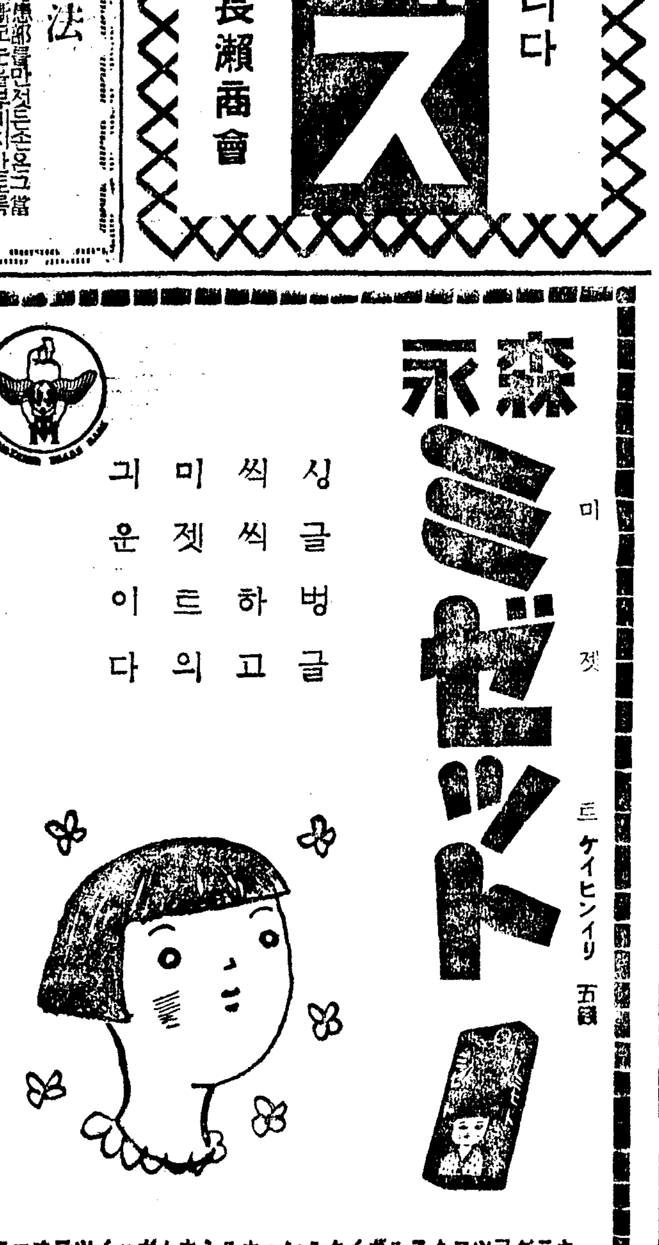
純灘式釀造法으로되야完全히 菊正宗의品格을享有함

京城·本町 本嘉納商店



氣品을말하는정다운無言詩

ラランポマード



森永 ミゼット

미젯트

싱글벙글 씩씩하고 미젯트의 귀운이다

ケイヒンイリ 五錢

カラダヲツヨクスルヴイタミン·カルシウムガハイツテヰマス

商、工兩組合令 年度內發布要望

朝鮮商議에 提出한 議案

第六回 朝鮮商議總會에 提出 會各商議의 提案은 如左하다

▲大邱商議=商業組合令과 工業組合令을 今年度內로 速히 制定發布하기를 要望한다

▲群山商議=商業組合令을 速히 發布하기를 要望한다

▲大田商議=總督府는 日本內地의 實例에依하야 速히 商業組合及 工業組合制度의 設定을 圖하며 또 中小商工業者에 對한金融의改善을 期하기를 要望한다

▲淸津商議=日本海橫斷 北朝鮮 裏日本의 定期航空及 京城 北朝鮮 滿洲間連絡 定期航空路의 開設을要望함

理由=最近 日本交通界의發達은 驚異할바이다 日本國勢圈內의 航空路의延長擴張과 쓰피-드의 增加는 一般의 航空의 利用을增加하야 東京、京城、大連及京城、天津間等의 急行飛行의 開設等 新時代의交通機關의 整備는 볼만한것이다 그런데 東京、北朝鮮、新京을 連絡하는 日本海橫斷航空과 京城、北朝鮮、新京을 連絡하는 航空이 全然缺如한은 日本內地와 滿洲의 交通上 甚히遺憾되는바로 現在 淸津港이 行하는 如한 設備不完全하기때문에 北朝鮮과 滿洲間의 定期航空도 開設되고잇는 實情으로 이方面에 잇서서의 航空連絡의 重要性에 鑑하야 速히 裏日本北朝鮮間의 日本海橫斷定期航空路와 京城、北朝鮮、滿洲間의 定期連絡航空의 確立을 實現하기를 바라는바이다

▲鎭南浦商議=朝鮮滿洲一如의 具現에伴하야 港灣整備擴充을 要望한다

理由=朝鮮滿洲一如의 具現은 날로 濃度를加하야 產業에 交通에 漸次具體化의 域에 達하고잇다고 하지만 時局의 重大와 朝鮮滿洲의 國防資源의 確保와 그利用厚生에伴하야 朝鮮의 港灣 整備를急施하야써 積極的으로 그開發助長을 圖함이 急務라고確信한다.

▲新義州商議=國策上重要한 工業의 成立及發達을 容易히하며 또 經濟的으로 하기爲하야 이에必要한 土地收用權을 付與하야 工業地帶의 地價暴騰을 抑制하고 그振興에 寄與하기를 要望한다

▲理由=朝鮮產業의 現勢에 鑑하야 工業振興策을 確立하야 速히 適切한 工業振興을 促進助成하는 것은 極히緊要하다 그런데 最近工業勃興의 氣運이 더욱 濃厚함에 伴하야 工業地帶의 地價가 顯著히 暴騰되야 이에 工業의 成立을困難케 할뿐 아니라 大經營上에도 不利不便을 甚하게하는 憂가잇슴으로 今後 國策上重要하다고 認하는 工業을 興하는데 잇서서 用地買收가 困難한 境遇는 土地收用令을 適用할 수 잇도록 法令을 改正하고 地價의 暴騰을 抑制하야 此種工業의 發達을 圖하기로 要望하는바이다

工業組合令 今年中公布

中小工業者의 助成과 그統制方策으로서 總督府에서는 日本內地의 工業組合令에 準據하야 今年中에 公布하기로되엇는데 殖產局에서는 그實施에 伴하야 全朝鮮의 中小工業者의 十二年度及十三年에 잇서서 組合을 設立코저하는 業種、地域組合員數와 組合의 共同販賣設備의 必要可否及 그理由等의 調査를 進行키로되어 近間 各道에 通牒을 發하기로 되엇다

結城財政遂行期待나 摩擦調和가 問題!

內閣總辭職과 財界

【東京電話同盟】內閣總辭職의 結果今後의財政經濟策에 如何한 變化가 잇슬지는 後繼內閣의 藏相與銀總裁에 누가되느냐를 본後가아니면 決定키難한데 今回의 政變이 財政經濟政策의 窮策으로 보다도 차라리 政黨과의 摩擦에 發端한政治的原因에 依하야 생긴것인만큼 所謂結城財政이라는 것이 特別히 變更을加치안코 極力各方面과의 摩擦을 避하야 國防充實其他重大政策을 圓滑히遂行할수잇는 政策樹立이 一般으로 期待되다 다만結城財政最近의 動向에 依하야 보이는것과 가티 金融投資 爲替管理等에 對한統制强化는 必然하다고 보임으로이點에 關하야 財界와의 摩擦을如何히調和할수잇슬지이點에 新內閣使命이 存在하다 即後繼內閣에 課한 財政經濟政策의 動向을 보매 大略如左한것이라고 觀測되다한다

明年度豫算編成=明年度는 國防의充實其他 重要政策의 遂行上 未曾有의 歲出膨脹이豫想되는데 이미國際貸借는 惡化의兆를示하고 公債는 屢次發行價額制를演하는等 財政經濟政策遂行上憂慮할 事態가 보임으로 經濟界에 變動을 與하지안코 豫算編成을 行함에는 歲出豫算에 對하야서도 適當한 統制를 加함이 肝要하며 軍部其他와 調和하야 圓滑히 編成함이 新內閣第一의 課題이다

稅制整理=所謂中央地方을 通한 稅制의 整理는 國民負擔의 均衡을 圖하는데 잇서서이며 結城藏相에 依하야 提唱되든 國民의 公約이오 後繼內閣에 잇서서도 當然引繼될것이다 다만 增稅의 範圍에 就하야 結城藏相은 今年度以上의 增稅는 안켓다고 言明하고잇섯는데 後繼內閣이 右方針에 變更을 加할與否는 注目되다

金融爲替公債等諸政策=結城藏相은 金融政策의 遂行에 對하야 人爲的工作을 加함을 避하고저하얏스나 經濟界의實勢는 漸次統制를 强化하여야 할方向에 進하는中임으로 新內閣이 金融의 引締爲替現勢、公債發行價額制、國際貸借의 惡化等에 對하야 如何한 方策을 加하고저하는지 後繼內閣藏相에 課한 重大任務이겟다

證券、商品市場 混迷氣分除去

【東京電話同盟】政局不安에 依하야 諸證券、商品各市場은 連日氣迷人氣를 繼續하얏스나 林內閣總辭職의 結果一日午前各市場은一般政局에關한 混迷氣分이 幾分取除되엇다 今回政變그것은 早晩잇슬것을 豫想하든것으로 問題는 後繼內閣의 人物如何인데 後繼內閣의 金融政策、物價對策을비롯하야 一般財政政策如何에 依하야 左右될것이오 各市場共히大體靜觀할모양이어다

金融硬化로 米穀資金利上

自己資金을三厘引上

貸出金利의反騰이 豫想됨으로 朝鮮內에서는 朝銀 殖銀 商銀等으로부터 放出하고잇는 米穀融通資金(米倉關係)金利는 從來 低資 自己資金共히 日步一錢三厘로 貸出하얏섯던것을 自己資金만을 一錢六厘로 三厘引上을 行한모양으로 注目된다 本年度의米穀資金은 이미回收期에 入하얏스나 今年은 米價關係로庫出하는것이 例年에比하야적고그 貸出殘은 相當한모양임으로 米穀商에게는 相當한打擊이라한다

米運賃引上

六月一日實施

朝鮮米輸送協會와 兩地荷主間의 朝鮮米輸送運賃協定은 過般의 大阪會議에서 決定한대로 阪神仁川間基本運賃은 現行六十五圓에서 十五圓引上인 八十圓을 六月一日부터 實施하얏다 解決中인 京濱西朝鮮間運賃도 輸送協會와 京濱荷主協議結果 六、七圓은 現行十圓据置 八月부터 十五圓即 六、七圓의 運賃九十圓을 實施하기로되엇다 八月以降 運賃은 阪神九十五圓 京濱百十圓이라한다

鰮油運賃도引上

鰮油運賃改訂은 六月三日부터 東京會議에서 協議할터인데 朝郵에서는 遠山營業課副參事가渡東하야 折衝키로되엇다 油運賃은 現行一纜九錢九厘인데 粕運賃이 이미一割四分引上이므로 油運賃도 그程度의 引上即一錢八厘의 引上이 容認되리라한다

(江原) 評議員二十五名 一日도 午前十時부터 會議를繼續協議하얏다

印度小麥豫想

【칼캇타發商通】印度政府는 三十一日 一九三六、七年度 全印度小麥 第四回豫想을 如左히發表하얏다

植付反別 三三、七二〇千英町

收穫高 九、六三三千噸

即前年度에 比하야 反別은七十七萬四千英町減少이나 收穫高는 二十五萬三千噸增加이엇다

漁組中央會役員

朝鮮漁業組合中央會評議員會는 五月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開催 穗積殖產局長 訓示가잇슨後評議員으로부터 設立經過報告 事業計畫本年度의 豫算을 審議하고役員選任을行한 結果如左히 決定되엇다

會長 穗積殖產局長 常務理事 石谷寅三(咸南) 幹事 的野勇一(全南) 木室判六(慶南) 佐藤又一

朝銀異動(三十一日附)

朝鮮銀行에서는 三十一日附로써 如左히異動을行하얏다

大阪支店支配人代理 村上溫太郞

命經津支店支配人

東京支店勤務 菅沼 勝雄

命大阪支店支配人代理

雄基出張所支配人 兼經津支店支配人 中村 直次

解經津支配人兼務

倫敦派遣員 藤野 重夫

命支店課勤務

東京支店支配人代理 永野 廣

命倫敦派遣員

米移出減少一途 粟輸入亦是激減

朝鮮米의 移出은 依然히不振狀態에잇서 五月中의 移出高를 보면 昨年同期의 百十一萬餘石에對하야 不過六十七萬八千餘石이며 昨年十一月以降의 累計로보면 昨年同期의 七百三萬餘石에 對하야 五百三十九萬三千餘石으로 百六十三萬餘石의 減을 보이고잇다 大體로보아 昨年의 凶年의結果로 在米가 極히稀少함은 勿論이고 今後에多少의移出은 본다해도 七百數十萬石에 머지안흘까하는것이 農林當局의 觀測이다 即 從來의 移出狀況을 보아도 比較的大量移出은 六月까지이고 그餘는 모다 少量임으로 만하야 七百數十萬石臺에 不過한것이라는것이다 또 粟의 輸出은 前年十一月以降五十九萬五千餘石으로 前年의八十萬石에 比하야 二十餘萬石의減을보이고 잇다

經濟日滴

發電第一堰堤 九龍浦로決定

鴨綠江發電第一期計劃에 基한第一堰堤는 平北九龍浦(昌城、渭城郡間)에 建設키로 決定하고 右에 伴하야 渭城鐵의國際橋梁도 近間建設에 着手키로되엇다

○朝取代行會社申請=朝取代行會社設立은 朝鮮取引所와 總督府의 諒解를 得하얏는데 今日會社設立認可申請을 總督府에 提出하엿다 法定手續其他 關係上 會社設立은 七月一日 以降이되겟고 七月十五日부터 大體 開業豫定이라고

○鐵道改良事務所開所式=鐵道局에서는 京城 釜山 平壤三處에 改良事務所를 新設하게되어 一日부터 드듸여 開所하엿다 伏島京城 藤釜山 佐藤平壤의各初代所長은 이날午前九時부터 局長代理로서 京城에 譯理事 釜山에 小林經理課長 平壤에 江崎建設課長의 來臨한가운데 所員一同이 參集하야 開所式을 擧行하엿다

十錢

○ 林內閣이 안나간다고 陰鬱튼 各市場은 突然總辭職으로 氣分轉換

○ 後繼內閣은? 누가藏相이되던지 갈길은 定해잇지만 方法이問題 安心치는마소 政策如何론 말성거리가 不少할듯

○ 漢銀은 頭取制復活코 林茂樹氏就任 殖銀理事舍씨로하라나?

株式 不安解消 上放

今日의市勢(一日)

前場奔騰 昨夕林內閣의突然總辭職은 常識的으로는 政變이라市勢는 反落할것이라고 생각햇슬것이나 이것은 政局不安이라幽靈을 放逐하엿기때문에 人氣는 도로혀 明朗化하고 게다가 어때까지 政局不安 金融逼迫을材料로 賣込한 關係도잇서 昨日에 過히突込한 反動도잇서 今朝의 寄付는 朝新五十錢高 新一圓六十錢高 鐘新九十錢高 新一圓三十錢高 日產一圓二十錢高로 一齊反撥하고 日產新은二十五圓拂込으로 五十八圓八十錢에寄付하엿는데 勿論大命降下에 對한 透視가 아직困難한 此際 아직後繼內閣의 如何와 이에 伴하는財政政策의 變化等도 알길이업서形勢觀望이기는하나 賣込의 反動은意外로커서 諸株가 暴低價로 一齊奔騰하야 寄付二百七十二圓丁으로오르고 東新도百五十三圓七十錢을 보이는等 長期의 保合으로부터 市勢는一轉하야 活潑한動向을 보이게되엇다

後場續騰 後場은 不變寄付하엿스나 買物과踏退物로 上進하야 東新은 百五十四圓九十錢의高價를보이고 止場되엇다

不安解消好感

市勢가 總辭職에 逆行하는것은 도로혀 稀有의일이나 總辭職後에 新騰하는것이 順序이엇든 林內閣이 四面楚歌中에서 버티나온것이 이른바 政局不安을 釀成한 根本原因이오또 이것을 根據로 賣進해온터이니 林內閣의 辭職이 當然視되고또 이로 因하야 政局不安이 解消되는것으로 보는데야 後繼內閣의 首班이 誰某가되던지 무슨 相關이잇스랴? 沈鬱의極에 達하엿든人氣가 明朗化해지는것도 奇異할것이업다 이리하야 二週間餘의오랜保合으로부터 分岐를始作하는것가티보이게되어 今後의活潑한場面은 勿論豫想되나 非常時의 財政政策이 首相과 藏相의 誰某가될에따라 基調에變動은 업다고하나 政策의變改에따라 統制의程度의 强弱도잇슬것이므로 不安解消를好感하고는잇스나 內心으로는 一抹의疑訝에가까운警戒心을가지고잇는것이다 如何는市場의人氣는 小幅의揉合은 別問題로하고 昨日今日로서 中間底入을完了하엿다고보아 今後얼마동안은 買進하고저하는 局面으로轉換될듯하다

雜株一齊反撥

政局이意外로 展開되데서 朝에好轉된人氣는 오랫동안 抑壓되엇든것만큼 反撥도 强力的이어서 諸株가一齊猛反撥을 示하게되엇다. 大同電力(配當落)은 五低로 電力株는 依然히低迷이나 過賣된日曹系株는 反撥도大幅으로 日曹新이 四圓暴騰하야 七十五圓丁이되고 日曹팔푸도 二圓高로 一、八로 一圓八反高이며 九州曹達도 配當落이면서 五高인三九、五이엇다 日滿아루미新(十二圓五拂込)은 五八、八로 堅調하며 化學工業株는 大體强硬한데 纖維株도 昭和人絹이 配當落으로 二圓八高 東邦人造가 二圓五高 日本紡新이 配當落으로三五高 東滿팔푸가 配當落으로 二七、五의 五高이며 팔푸工業 一圓高 鐘新은 百五圓五로 一圓五高이며 三菱鑛新도 二圓高로 鑛業株도 稍强이며 北樺油五二、五로 石油도 堅調이엇다 商船新은 三九、五로 二圓反撥하고 三菱重工新도 五高이며 興水新도 一圓五高 日產고무도 一圓高 拓新도 一圓五인三〇、五이엇다 日本데질은十二圓五拂込으로 二五、五가되고 滿工은配當落이나 二十圓拂込株 五十圓額面으로하야 七十圓唱이오 增資新株는 十二圓五拂込으로 二十三圓唱이엇다

朝取上期業績

朝鮮取引所의 上半期營業成績은 如左하야 株式配當은旣報와 가티 二分增配인 一割八分으로 內定하얏다

	上半期	前年同期
▲賣買高		
株式	二、三〇五、九〇〇株	一、一三〇、六〇〇株
期米	一九、一七五、八〇〇石	七、四三五、一〇〇石
▲賣買手數料		
株式	[illegible]	[illegible]
期米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繰延日步	[illegible]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國債 處分賣로 下押

▲東京【東京電話同盟】金融界의 前途에 對한 一抹의警戒 [illegible]

漢銀頭取에 林茂樹氏選任

漢城銀行에서는 故伊賀專務後任補充의 臨時株主總會를 六月一日午前十時부터 同行會議室에서開催 左記諸項을 附議可決하고 十時二十分閉會하얏다。

一、定款變更件 取締役會長 專務取締役制를 廢하고 頭取 常務取締役制로할件(原案可決)

一、取締役一名增員件

一、代表取締役選任件 (林茂樹氏選出)

一、重役報酬增額件 (二萬五千圓以下로決定)

一、故伊賀取締役遺族에 弔慰金贈呈件 (重役會一任)

總會後 重役會를 開催하고 互選한結果 如左히 決定하엿다

取締役頭取 林茂樹

取締役 張弘植

林漢銀頭取談

漢銀頭取에選任된 林茂樹氏는 如左히말하다

頭取에選任되엇는데 乙種銀行의 業務를統轄함은 最初이나 前任者의 方針을잘研究한後 行運의 發展에努力하는 同時金融界를 爲하야 微力을다하고저 念願한다

○一日附로發令=殖銀을 辭하고 漢銀頭取에 選任된林茂樹氏에 對하야 一日附로써 如左히發令이잇섯다

依願免職務 株式會社朝鮮殖產銀行 理事 林茂樹

朝鮮의五月輸入

昭和三年五月以來最高額

五月中의 朝鮮對外貿易高는 (單位千圓)

	本年	比前年
輸出	一〇、一三三	四、一八一增
輸入	一四、五六三	六、四五三增
合計	二四、六九六	一〇、六三四增

入超 四、四三〇 二、二七二增으로 輸出은 日本內地產人絹의 無檢査通過輸出이 禁止된結果 四月에 比하여서는 百萬圓가량減하엿스나 亦是一千萬圓臺를突破한것은 過去에 잇서서 去四月과 五月뿐이다 品目으로는 絹製品 水產物 琺瑯鐵器等이 昨年에 比하여 各數倍式增加되엇스며 이 注目되는바이다 또 輸入은 昭和三年五月 以來의 最高額으로 品目別로보면 原油大豆等이 各三百餘萬式 增加되엇이다 그러고 輸出品의 產地別額을보면 다음과갓다

朝鮮產	五、七七七
日本內地產	三、六五五
外國產	六九九

豐橋繭初取引

【豐橋電話商通】乾繭初取引으로 三十一日 愛知縣細谷村으로부터 白繭四百五十貫의 共同出荷가잇고 六圓〇五錢에 取引되엇는데 掛目은 四十二掛이오餘量은 十四匁이엇다

期米 薄鞘發會 好勢

前場少强 今朝阪地中限三十四圓十八錢인 三丁高로 新甫八限三十四圓三十九錢인 二十一丁上朝와 東京先限三十四圓七十五錢인 十九丁上朝發會를 據하고 當은三十二圓九十九錢인 昨納會價의 同株으로 中限亦三十二圓十九錢인 同株으로 新甫八月限 三十二圓二十五錢인 六丁의薄上鞘로 發會하야 相場下場에 따라 八節三十九錢으로 續高하얏다

後場上放 後場은 三十二圓十九錢으로 大阪止四十五錢을 보고 三十八錢에寄場을 止하다

八限兒는誕生 今後波瀾可期

新甫八月限인 風雲兒는 僅히 六丁薄鞘로 誕生하엿다 果然此限의前途方向을 如何히 取할것인가를 一考하면 勿論天災一本으로서 大勢를左右한다고 말하지 안을수업슬것이다 그런데 朝鮮의天候는 春來의雨量이充分하야 麥作은 旣히豐登으로 秧苗의發育도良好하야 植付樂觀을呈하는 中이나 靑草時代인 今日에잇서 來의豐作을 斷言할수업스며 日本內地의天候는 梅近以來의雨量이過多하야 麥作이稍히 不良한 편이오 又는梅雨期에 入하기前의 降雨가 多하면 卒梅雨의 降雨가 多한때는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米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仁川期米先限	三二、三〇	一
大阪米期先限	三四、三六	一
三等米 一石	三一、八〇	八〇低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二二、四五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價	九錢三厘五	不變
三等	九錢二厘五	一
고무FAQ	六錢四厘	一

◆株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大阪三品 綿絲	[illegible]	一
綿花	[illegible]	一
人絹	[illegible]	一
砂糖	二四、三	一

林內閣總辭와 米價影響如何

不人氣의林內閣은 畢竟總辭職을斷行함에至하엿다 그런데 總辭職後의 米價에對한 影響이 何如할것인가를 一考하면 米穀有의 膨大한 豫算은 旣히通過되엿스므로 更히變更이업시 既定方針그대로遂行될것이오 따라서 財界에도 別影響이업슬것을 豫測할수잇스며 米價에對하야도 旣히 統制法으로 局限을定한以上 今後어떠한內閣이出現된다할지라도 更正하지못할것인즉 米價에對한 別影響도 업슬것이다 그러한모든關係로因하야 總辭職後의人氣는 米株兩界를 通하야 一時的瓦落을豫期하엿든바이나 今朝의 場面은 何等의 餘影響이업시 도리혀 强硬味를添하야 政局安定市勢를 演出하는感이업지아니하다 또다시 軍閥內閣이될지 擧國一致內閣이 될지 此에는 疑問을 付할수업스나 그러나 結局은天氣一本으로서 大勢를左右하게될것이다 實際事情도 强弱味를 加하게될것이다 限米이만치 今後의 天氣如何를 보아 一騰一落의 大壯觀을 呈할모양이며 此에딸아서 正米의 限은 元來浪漫之勢를 依하는 할수업는 現象에잇다 何如間 樂觀을 許하기 어렵지아니하므로 氣分이 잇는때에 突破的政變이므로 處分物이만허 一、二回物은 十錢低 佛貨도二十錢下押하고 米貨도一圓五十錢低落되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一〇▲佛貨 一九五、九五

▲大阪 ▲甲五分利 一〇一、一〇▲第三五分 一〇二、二〇▲二〇年四分半 一〇一、九〇▲一九年四分半 一〇一、一五▲一回四分利、一〇一、二〇▲二回四分利 一〇一、四〇▲三號四分利 一〇一、四五▲二三年三分半 九七、八〇▲佛貨 一九六、〇〇▲滿洲米貨六分半 三七九、〇〇▲滿洲公債 一〇〇、〇〇

仁川堅調

期米의 新高를 보고 唱價十錢高가 되엇스나 受渡米의 騷賣와 日本內地米의 不振으로 商狀은 圓滑치못하나 全體로는 依然活潑치못하다 (當)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二三、五〇

釜山少弛

淸算新甫의 不勢를 옮겨 高價는 極力買應하고 이에加하야 依然한 移出側의 沈衰으로 市況은 鈍狀을示하고잇섯다 (單位)良 三二、〇五 三一、八五 一等白米 二三、一九

大邱少高

期米의 高含으로 人氣少堅하야 必需小口의適賣로 氣配十錢高唱인데 月初나마 移出商談은 별로업다 (單位)良 三一、五〇 三一、三〇 一等白米 二三、〇〇

群山保合

環境高에 刺戟되어 期米는 好調이나 產地의 賣氣와 運賃關係等으로 人氣는 比較的不振하야 市勢는 保合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二三、五〇

木浦不變

日本內地의 買氣不添하야 期米好轉에도 貿易雜散으로 形勢觀望 ◎銀坊主三等 三一、〇〇 四等 三一、七〇 一等白米二三、二五

期米 康益夏 仁川

金銀賣買會社 石土白金賣買 金分析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鑛石分析 電話本局 一三八〇番 振替 京城一三四八〇番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海外經濟

銀行券

手形交換·金利

金銀價

對外爲替

大阪金利

阪神鰯粕·麥粉

日本麥粉市勢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正米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市中在米高

正租 · 大阪正米標準價

雜穀 · 京城雜穀 · 仁川雜穀

綿絲 · 京城綿絲布市勢

本絹交織人絹 · 京城絹布

滿洲商況 · 大連特產市勢

正米 京城少堅

定期高로

朝取期米取組內容

株式 · 朝取短期 · 大阪短期 · 東京短期 · 大阪長期 · 東京長期 · 朝取短期賣買高 · 短期主要取組高

期米 · 朝取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 大邱期米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砂糖 · 生糸 · 人絹 · 棉花 · 綿糸